



Dior

Style

조선일보

MARCH 2014 vol.106



TOD'S
MADE IN ITALY



Jacket in patterned cotton poplin
Straight trousers in patterned cotton and linen gabardine
Dip tie in silk twill
«Etrivière» briefcase in Sombrero calfskin

에르메스 코리아 02 544 7722
Hermès.com



Metamorphosis, an Hermès story





BURBERRY

Dior PRESTI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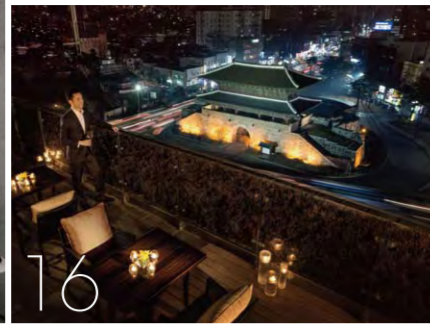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섬세함 속에 피어난 투명한 빛

아시아 여성의 피부는 아주 예민합니다. 젊고 투명한 피부의 상징,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은 디올 가든의 보석이라 불리는 로즈 드 그랑빌을 함유하고 있어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특별한 빛을 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장장 9년의 연구 끝에, 장미 생명력을 추출하여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력을 깨워주는 넥타를 완성했습니다. 전설적인 화이트 피오니가 들어있는 이 넥타는 피부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피부 밀도는 촘촘해지고 피부 탄력은 탱탱해지며, 피부 투명도가 개선되도록 도와줍니다. 한 달 후, 피부결은 보드라워져 깊은 곳에서부터 생기 넘치는 투명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순백의 꽃잎처럼 다시 피어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아시아인 피부에 특화된 배합 및 테스트





48

16

3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2014 S/S 시즌부터 새롭게 바뀐 토즈의 여성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라 파카네티가 디자인한 D-쿠브 백이다. 토즈의 클래식 백인 D백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버전으로, 각이 잡힌 형태가 특징. 네 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며 화이트와 버건디, 버건디와 핑크 등 컬러 매칭이 감각적이다. 문의 02-3438-6008



14

- 16 **도시의 꽃 호텔, 진정한 랜드마크로 도약할까?**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다양한색의 프리미엄 호텔들은 한 시대의 열망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도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18 **2014 S/S WOMEN'S TREND REPORT** 작년 가을 런던·밀라노·뉴욕·파리 등 4대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은 2014 S/S 컬렉션 피스를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봄이 왔다.
- 20 **JEWEL BOUQUET** 작은 숄더에도 상처받을 듯 여린 꽃잎 위에 놓인, 핑크빛 백합을 따라 흐르는 플라워 모티브의 섬세한 주얼리들.
- 22 **HIGH IMPACT** 대범한 디자인과 완벽한 세공으로, 가까이 들여다볼 수록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볼드 링 컬렉션.
- 24 **BLACK OR WHITE**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에서 강렬한 블랙 컬러, 우아한 화이트 중 어떤 다이얼을 선택할 것인가.
- 26 **PEN CLUB** 서명을 하는 중요한 순간, 만년필을 꺼내 든 남자의 우아한 제스처는 너무나도 근사하다.
- 28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코즈메틱을 참고해 화장대를 업데이트할 것.
- 30 **A DRESS FOR SUCCESS** 모던 클래식을 지향하는 신사들의 놀이터, 분다삼(클래식) 전문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분다삼 라벨의 수트와 재킷 컬렉션을 처음 론칭한다.
- 32 **MEMORABLE STORY**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의 마더스 컬렉션은 장미와 하트 모티브 참에 소중한 메시지를 담아 더욱 가치 있는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THE LIVING LEGEND** 조르조 아르마니의 놀라운 의상이 할리우드의 블루버스티 영화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34 **NEW BRIGHTENING** 아무리 좋은 피부과 시술도 예방과 유지, 사후 관리 없이는 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없기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화이트닝 제품에 주목해야 한다.
- 36 **ROSE BEAUTY** 화장품 원료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수많은 장미 중, 오르지 이탈리아 피렌체의 장미만 사용하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특별한 로즈 컬렉션을 소개한다.
- 37 **LET IT GLOW** 울퉁 울퉁 강력해진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샤넬 르 블랑'은 완벽하게 빛나는 투명한 진주 광채 피부를 실현한다.
- 38 **PRIME INFLUENCE** 계절과 계절 사이, 지오메트릭 패턴을 믹스해 이탈리아 레트로 클래식 스타일링을 참고해본다.
- 44 **MOST WANTED**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다. 무거운 겨울 아우터를 털어두고 가볍고 산뜻한 스프링 코트와 재킷 쇼핑에 나설 때다.
- 45 **THE BEHIND OF NEW CLASSIC**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 에르메네지갈도 제너와 전설적인 디자이너 스테파노 피라티의 만남.
- 47 **ULTIMATE BLAZER** 정통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 발자베리가 화려한 컬러와 경쾌한 체크 패턴을 입은 블레이저 컬렉션을 제안한다.
- 48 **CASA DO CONTO** 모더니티의 극치를 보여주는 '카사 도 콘토 (Casa do Conto)'는 벽과 천장에 새긴 단어를 통해 건축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06 March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GUCCI

SHOP GUCCI.COM

Watch

에르메스 워치의 아름다운 시간 여행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에르메스 워치 컬렉션이 오는 2014년 3월 바젤월드에서 선보일 주요한 워치 컬렉션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일본의 예술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아스 테마리(Arceau Temari) 워치는 스노 세팅 기술과 나무쪽이나 널 조각을 기구 표면에 붙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상감세공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기법에 도전했다. 테마리는 일본어로 손으로 갖고 노는 공을 의미하는데 실크와 자수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만들면서 새로운 방식의 예술로 진화했다. 에르메스의 살크 카레(Carré) 스키프에도 영감을 준 이 기법이 올해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아쇼 라인에서 다이아몬드와 자개, 옻석, 청금석, 옻말 등을 활용해 멋지게 재해석된 것. 7백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스노 세팅 바젤, 깨지기 쉬운 고귀한 소재를 활용해 미니 어저 퍼즐처럼 짜맞춘 다이얼까지 동양적 아름다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아쇼 테마리 컬렉션은 올해 바젤월드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에르메스의 예술적 향취가 깊게 묻어있는 디자인으로 에르메스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워치 컬렉터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제품이 될 것이다. **에디터 이예진**



WELCOME, NEW LABELS!

상당대는 봄바람만큼이나 우리 여자들의 마음을 살리게 해준 신구 패션 브랜드 드가 출발대에 섰다. 올 한 해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볼 것. 먼저 브라질에서 날아온 플라스틱 슈즈 브랜드 멜리사가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연다. 30여 년간 오직 질의 슈즈만을 만들어온 브랜드의 정교한 커팅 기술과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칼라갬펠트, 장 폴 고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하이 패션 디자이너와의 컬래보레이션을 꾸준히 진행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찍이 국내에 선보인 바 있는 브랜드가 새 출발에 나서는데도 있다. 지난 1년간 소식이 뜸했던 빌리는 패션 전문 기업 한섬과 만나 국내 패션마켓에서 단단한 입지를 굳힌다. 빌리의 브랜드 철학인 혁신과 기능성, 유아함 등을 기반으로 모던함을 더해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워커 부츠의 대명사 탐버랜드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며 탐버랜드 코리아로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아웃도어와 캐주얼을 폭넓게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슈즈 및티슈와 편입점에서 인구를 구가하던 피에르 이르디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아시아 최초 부티크 매장을 열었으며, 보헤미안 콘셉트의 주얼리 브랜드 시몬타 웰스는 뉴욕과 런던 등 주요 도시를 거쳐 국내에서는 유틸리티 W를 통해 선보인다. 론칭을 앞둔 2개의 빅 브랜드도 있다. 구매 대행이 주된 통로 역할을 하며 트렌드세터의 애용 태우던 런던 베이스 브랜드 올 세인츠가 아시아 최초 매장을 국내에 오픈할 예정이며, 패션 에디터의 해외 쇼핑 코스로 꼽히던 H&M의 상위 브랜드 COS가 진실 롯데월드몰에서 국내 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셈이다. **에디터 이예진**



FANCY LIPS

이우리 레드, 누드 톤이링 메이크업이 트렌드라 해도 매 시즌 베스트셀러는 단연 핑크 립스틱이다. 여자라면 본능적으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에 끌리기 마련이니까. 피부 화장을 하지 않아도 핑크 립스틱 하나면 얼굴에 꽃이 피듯 화사한 생기가 더해지니 하나쯤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딸기 우유 컬러부터 핑크가 도는 핑크까지 다양한 채도의 핑크 립스틱 중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할까? 본인의 피부 톤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부가 어둡고 까무잡잡한 편이라면 오렌지 핑크나 브라운 톤이 감도는 코랄 핑크 컬러를, 한국인 피부에 가장 가까운 노란 피부라면 화사하고 진한 꽃분홍색이 단연 돋보인다. 울퉁 울퉁하게 묻어있는 스틱을 연출하고 싶다면, 핫핑크 립스틱을 입술 라인까지 번들없이 채워 발라볼 것. 페이스 파우더로 입술 선을 정돈한 후 납작한 타인의 브러시를 사용해 비르면 깔끔하게 비울 수 있다. 비드한 핑크 립스틱을 일상에서 좀 더 웨어러블하게 즐기고 싶다면 꽃잎이 물든 듯한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입술 안쪽에 립스틱을 바른 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기듯 그려 데이아한 된다. 입술 중앙에서 입술 선으로 갈수록 사리자듯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 자, 이제 이번 시즌 가장 핫한 핑크 립스틱들을 소개하니 화사한 핑크 립 메이크업으로 남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시간문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생로랑** 루주 볼림메 #33 핑크 볼림메 4g 4만 원, **샤넬** 루주 코르 #59 3.5g 4만 원, **시세이도** 파파렛 루즈 PK417 4g 3만5천 원, **코리너** 차비 스틱 모이스처라이징 립 컬러 밤 #5 창가제리 3g 2만7천 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바비드 사인 립스틱 핑크 볼림메 3.8g 3만9천 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엑스터시 #500 엑스터그로 4g 3만 원, **디올** 루즈 디올 #567 3.5g 4만 원, **바비 브라운** 아트 스틱 #4 일렉트릭 핑크 5.6g 3만 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봄을 더 화사하게 밝히는 스와로브스키 리빙 컬렉션 2014

스와로브스키(Swarovski)가 단순히 패션 주얼리 브랜드가 아닌 사실을 아는 이들이 꽤 많다. 특히 지난해 대림미술관에서 열린 (스와로브스키, 그 빛나는 환상) 전시를 접한 이라면 이 크리스털 브랜드가 얼마나 다채로운 영역에 도전해왔는지 잘 알 것이다. 최근 스와로브스키는 서울 신사동의 라파사 호텔에서 크리스털 리빙 컬렉션을 선보여 그 다양한 면모를 다시 한 번 뽐냈다. 장인의 섬세한 세공 솜씨를 느낄 수 있는 크리스털 미러드(Crystal Myriad) 컬렉션을 비롯해 아름다운 새, 바닷속 생물 등을 활기차게 표현한 '크리스털 파라다이스(Crystal Paradise) 컬렉션, 아가자기한 영감을 불어넣은 동물 캐릭터 컬렉션인 '러블릿(Lovlots)' 등 각각의 색의 오브제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심지어 동물로 구성된 차이나즈 조디악 같은 컬렉션은 동양적인 맥락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즐거운 기운을 더해준다. 또 세계 최대의 크리스털 수집가 모임인 SCS(Swarovski Crystal Society)를 위한 스페셜 에디션의 역사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각종 오브제들도 선보였다(화원에게만 독점 판매하는 이 작품들의 수익금은 스와로브스키의 워터 스쿨에 기부한다고. 스와로브스키 관계자는 "가실의 테이블에 섬세한 반짝임이 돋보이는 입증받은 크리스털 제품들을 놓아두거나 화초와 어우러지도록 배치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에디터 고성연**



Concert

세계를 누비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메세나 콘서트

국내에서 각광받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이 주목된다. 하나는 러시아 음악의 계보를 잇는 보물아라는 칭송을 받아온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의 솔로 무대. 올림푸스한국에서 기업 메세나 활동의 하나로 운영하는 '올림푸스 앙상블의 리더로 힘 있고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소주로 TV 프로그램 (스타킹)에도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권혁주의 솔로 공연이 러시아, 거장을 만나드리는 주제로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개최된다. 바이올린 영재로 9세의 나이에 러시아 유학을 떠난 권혁주는 안홀스키 콩쿠르, 파가니니 콩쿠르 등에서 우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무대를 나타낸 인물로 국내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 Op. 34, 차이코프스키의 왈츠-스케레초 등 자신의 음악적 근간을 이루는 러시아 음악 거장들을 향한 오마주를 담은 공연을 준비해 많은 팬들을 살리게 하고 있다. 이어 오는 4월 17일에는 권혁주를 비롯해 김지연(바이올린), 이한호(비올라), 박고운(첼로), 성민제(대블베이스)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음악인으로 구성된 올림푸스 앙상블 전원이 발탁되어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모든 공연에서 반주자 겸 협연자로 참여한다. 홈페이지 www.olympushall.co.kr, 문의 02-6255-3270 **에디터 고성연**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BUTTERFLY



몸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 니트 원피스 3백32만원 렌디.



다채로운 원색 스톤으로 화려함을 더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클래식한 디자인의 핑크 컬러 토트백, 34x21cm, 2백만원대 발렌시아가.



오렌지 컬러 선글라스 27만원 토리 버치 by 록스타카.



거울 효과의 미러 스트랩을 애처한 라미니드 디올 미러 워치 4백만원 디올 워치.



꽃무늬 디자인의 레이스로 유닛 1백50만원 제이름스.



메탈을 구긴듯 표현한 디자인이 유니크한 뎅을 가격 미정 셀린느.



보스톤 아이 레몬은 핑크 스퀘어 50만원대 돌그레이 하워드.



드롭잉 프린트가 돋보이는 오렌지 컬러 섀크 하이힐 80만원대 미우미우.



공작새, 그린 스톤, 플라워 참으로 장식한 가죽 브레이슬릿 3백만원대 판도라.



컬러감이 신뜻한 토트백, 34.5x34.5cm, 가격 미정 롤리츠 플리즈.



앵무새 모티브의 악어 가죽 클러치, 15.5x9cm, 2백80만원 낸시 곤잘레스.



패션 동전 디자인 1백20만원 구찌.



그린 컬러 체크 재킷 1백21만원 까르뱅 by 쿤.

- 구찌 1577-1921
- 렌디 02-2056-9022
- 미우미우 02-3218-5341
- 록스타카 02-501-4436
- 마크 by 마크 제이름스 02-3442-2950
- 발렌시아가 02-542-1937
- 디올 워치 02-513-3216
- 자방시 02-517-7560
- 돌그레이 하워드 02-3442-3696
- 셀린느 02-3440-1547
- 발렌티노 02-543-5125
- 판도라 051-730-3179
- 롤리츠 플리즈 02-3438-6290
- 낸시 곤잘레스 02-3449-5936
- 쿤 02-548-4504



TASAKI

refined rebellion



for him
Selection

블랙, 또 블랙. 칙칙하고 어두운 색이 가득한 당신의 옷장에 색감을 풀어넣어보자. 컬러를 즐길 줄 아는 자야말로 진정한 멋쟁이니까.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189mm 크기로 웅장한 느낌. 작은 공매트 오션. 그레인을 컬러블루로 2년만인데 무늬를.

1.14m 크기로 웅장한 느낌. 작은 공매트 오션. 그레인을 컬러블루로 2년만인데 무늬를.

파스텔 톤의 컬러 블록이 산뜻한 선글라스 10만원대 크레아그 앤 칼 by 유티컬 W.

스트라이프 벨트 50만원 풀브라운 by 10.31르스 코모.

샤일리스트 융합형 아시스트 이어링 에터리 콤팩트

비버드한 컬러의 헤드셋 14만9천원 소울 by 소비코.

레오파드 패턴의 숄더 숄츠. 가리미컬 크리소스. 상투형 by 분다삼

브랜드의 시그니처 패턴을 형상화한 커피스링크 가격 미정 에르메스.

커뮤플라주 실크 타이 20만원대 발렌티노 by 무이.

화이트 굽이 돋보이는 그린 컬러 소가죽 로퍼 70만원대 토즈.

1.14m 크기로 웅장한 느낌. 작은 공매트 오션. 그레인을 컬러블루로 2년만인데 무늬를.

블루와 핑크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니트 34만원 풀스미스.

- 에르메스 02-544-7722
- 고아드 02-3448-4778
- 10 르스 코모 02-3018-1010
- 올체엔가바나 02-3444-0077
- 유티컬 W 02-6911-0845
- 분다삼 02-3444-3300
- 소비코 02-525-0704
- 풀스미스 02-3447-0278
- 무이 02-3446-8074
- 버버리 02-3485-6536
- 토즈 02-3448-8105
- 생로랑 02-3438-7627
- 지방시 02-517-7560
- 위블로 02-3279-9074

화 핑크 컬러의 프린트 백팩. 38x30cm. 가격 미정 생로랑.

FENDI CHAMELEON COLLECTION SERIES 30040 IS A REGISTERED MODEL



도시의 꽃 호텔, 진정한 랜드마크로 도약할까?

〈도시의 건축〉이라는 명지를 남긴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도 로시는 도시를 가리켜 “시간과 더불어 성장한 건축과 공학의 합작 인공물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했다. 도시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호텔 역시 종합예술의 면모를 갖춰가는 듯하다. 건축과 디자인, 공학, 예술, 미식, 전시, 쇼방 등 갖가지 콘텐츠들이 결합된 유기체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각양각색의 프리미엄 호텔들은 한 시대의 열망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도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까?

10년도 훨씬 더 전에 인도에 3주 가까이 머물면서 7개 도시를 돌아다니던 적이 있다. 인구수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데다 IT 강국이며 제3세계의 맹주를 자처할 만큼 국제 정치판에서도 한 몫을 하는 인도지만 지금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천달러대일 만큼 가난한 데다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 정부 초청의 출장이라 ‘토종 브랜드’의 호텔에서 머문다가에 솔직히 굉장히 쾌적한 숙박 시설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웬걸. 향신료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맛깔스러운 음식만큼이나 필자를 반하게 만든 건 이 매력적인 ‘모순’의 대국에서 잉태된 호텔들이었다. 우선 인도 고유의 정서가 느껴지면서도 세련되고 호화로운 뎀시가 일품인 뭄바이의 오베로이(Oberoi) 호텔. 친란한 역사적 전통이 느껴지는 격조 높은 장식, 상층부에서 빼어난 곡선미를 자랑하는 수영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 디자인,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도 이미 DVD 플레이어 등 당시로서는 첨단 시설을 객실마다 완벽히 갖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으로 기억된다. 가족 경영으로 유명한 오베로이는 그동안 해외에도 더 활발히 진출해 그야말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호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인도 최대 대기업인 타타 그룹이 거느린 타지(Taj)는 또 어떨까. 이 호텔 브랜드는 극도의 호사스러움을 자랑하는 궁전 호텔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각양각색의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인도의 실리곤 벨리로 불리는 방갈로르 소재의 타지는 ‘자연주의’라는 단어를 절로 연상케 하는 더없이 인락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지녔기에 지금까지도 폭파될까 꺼리거나 싶지 않은 하얀 유기농 면 같은 이미지로 떠오른다. 실제로 타지는 2005년 뉴욕의 최고급 호텔 피에르 뉴욕을 인수해 고아한 분위기의 명문 호텔로 자리매김시켰고, 호주 시드니의 W호텔을 사들여 오래된 부두를 살린 재기 넘치는 인터리어가 특징인 디자인 호텔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바로 수많은 트렌드세터들의 사랑을 받는, 이름처럼 푸른색이 감도는 외벽이 인상적인 블루 시드니(Blue Sydney) 호텔이다.



도시 경쟁력의 밑거름인 랜드마크를 꿈꾸는 프리미엄 호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기억의 편린은 흐려지면서 여행지는 결국엔 한두 개의 이미지로 남곤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필자에게 IT 강국이라기보다는 경이로운 호텔의 나라였다(물론 그 무엇도 타지마할과 같은 문화유산만큼 그 오라가 강력할 수는 없었지만). 소위 ‘럭셔리 호텔’이어서만은 아니다.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라는 책을 펴낸 건축가 송하영이 주장했듯이 모든 도시가 꿈꾸지만 아무 도시나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의 뿌리인 성공적인 랜드마크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탄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분명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 도시의 랜드마크는 단지 자금력만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사고 체계, 예술 정신, 기술력 등을 반영하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정체성과 저력이 느껴지는 오베로이와 타지는 분명 당시 ‘공식 가이드’를 받았던 인도 외교관이 당당하게 뽐낼 만한, 매력적인 브랜드이자 랜드마크였다. 물론 호텔이란 공간은 집을 떠나 머무르는 외부의 장소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그저 차갑기 그지없는 상업 시설, 그리하여 오히려 인간의 외로움을 북돋우는 곳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볼세츠크의 작가 알베르 카뮈처럼 호텔에서 일하는 걸 몹시 좋아해 죽어도 쫓겨나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호텔 방처럼 고독하고 편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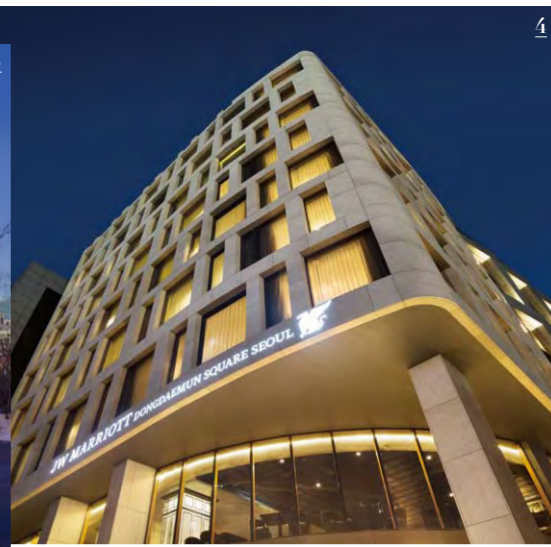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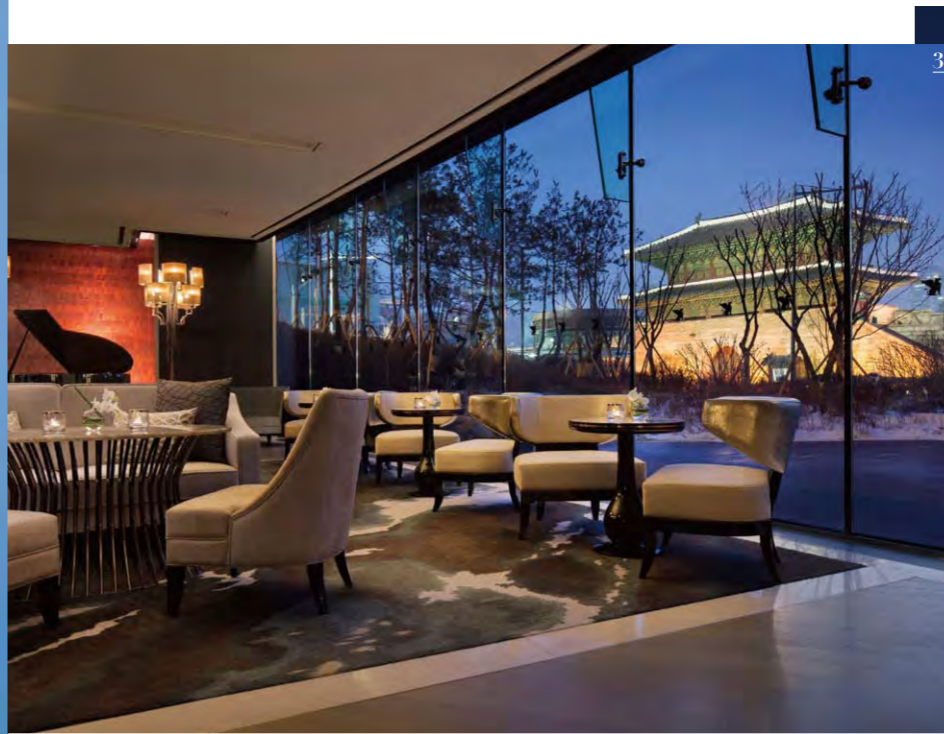


공간을 사랑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또 다른 동지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메트릭스〉의 배우 키아누 리브스처럼 집 없이 호텔을 떠도는 ‘집시형’ 인간도 있는 법일 테고 말이다. 출장이든 여행이든 방랑이든 우리는 대부분 낯선 타지에 도착하면 지친 심신을 편히 쉬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호텔로 발걸음을 옮긴다. 완벽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인간형이든 일부러 불결하고 불편절한 호텔을 원하기는 힘들다. 보다 소박하고 장식이 덜 된 호텔을 선호할 수는 있어도 말이다. 도시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를 맞이해 국경 없이 여행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호텔 산업의 정체성, 특히 입맛 까다로운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색깔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황금 알을 낳는 MICE 산업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

관광만이 아니다. 미이스(MICE) 산업, 다시 말해 회의(meeting), 포상 관망(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둘러싼 비즈니스가 발달하면 할수록 호텔은 더더욱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MICE 산업을 겨냥해 일부 호텔들이 제공하는 환경은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야외 수영장에서 미이스 행사를 진행하는 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카지노 도시의 고급 호텔 벨라지오(Belagio), 윈(Wynn)에서는 휴가차 머무르는 레저 고객들과 정상 차림의 비즈니스 고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야외 수영장에서 즐기는 풍경이 자주 연출된다고. 지난해 8월 새 단장한 모습을 드러낸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은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사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호텔 야외 수영장의 카바나(cabana)에 각별히 신경 썼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당시 리오피콘을 앞둔 전야에 주류 기업 디자인의 프리미엄 보드카 브랜드 시락(Ciroc) 론칭 행사가 신라 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반 아일랜드에서 열린 예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듯하다. 신라 호텔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업을 주도했던 카지노 산업이 마카오로 넘어가면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돌파구가 미이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야외 수영장은 일반 고객한테도 인기 만점이지만 카테일 리셉션, 애프터 파티 등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10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작업을 끝내고 새 모습을 선보인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미이스 고객들에게 중점을 둔 좋은 예다. 무역센터 인근에 자리한 위치 선정에서 이점을 지닌 인터컨티넨탈은 그랜드 볼룸을 본관으로 옮기면서 대폭 확장했는데, 전체 면적 1,494㎡로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며 7m 이상의 천장으로 장



1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비즈니스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이스 산업을 겨냥한 일부 호텔의 경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볼 부산에 들어선 피르 하프트는 해운대, 광안대교, 요트 경기장 등 호젓한 전경을 자랑한다. 2 비즈니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최근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3, 4 지난 2월 그 모습을 뽐내 드래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우리나라 보물 1호 홍익재민을 바라볼 수 있는 전경과 우아한 시설들이 매력적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다. 5, 6 지난해 8월 새 단장을 끝내고 선보인 서울 장충동의 신라 호텔. 궁 돌린 야외 수영장이 인기 만점이다. 또 구도 아늑하고 아늑 사이 가워할 패드까지 갖춘 수면 환경이 돋보인다. 7 서울 여인도에 우뚝 솟은 특급 호텔 콘래드 서울. 국내 최장 길의 높이를 자랑하는 나선형 계단이 눈에 띈다. 8 얼마 전 공지의 미술 취미에 들어선 스타그랜드 호텔의 문화적인 맥락이 절로 느껴지는 인터리어.



대한 규모의 국제 행사나 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비즈니스 고객들이 자주 들르는 로비 라운지와 바에는 ‘숙취 해소 전문가’까지 영입했다고 하니 가히 미이스 산업의 영향력을 가늠할 만하다. 인터컨티넨탈을 소유한 GS 그룹 계열의 파르나스 호텔(주)은 올해 호텔 기업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컨벤션 전문 브랜드를 표방하는 ‘나인트리 컨벤션 광화문’도 개장하며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 2016년에는 세인트 레지스(St. Regis)와 함께 스타우드 그룹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인 럭셔리 컬렉션(Luxury Collection)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바로 옆에 들어설 복합 빌딩 파르나스 타워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강북에서는 힐튼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 콘래드가 여의도에 터를 잡고 비즈니스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오는 2016년엔 포시즌스(Four Seasons)가 광화문에 문을 열 예정이라 웨스턴 조션, 플라자, 롯데 등 인근 호텔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 못지않게 미이스 산업이 강세인 부산에서도 지난해 봄 오픈해 이목을 집중시킨 파크 하얏트에 뒤이어 영국의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랭엄(Langham)의 6성급 호텔이 평안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설 전망이다.

호텔을 채우는 콘텐츠가 알아야 호텔도 도시의 콘텐츠로서 성장한다

이쯤 되면 한국에 글로벌 톱 브랜드들이 대거 입성하는 호텔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상권은 발달했지만 프리미엄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었던 동대문도 예외는 아니다. 천문학적인 자금 동원과 이질감을 주는 외관 디자인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동대문디자인공원(DDP)의 개장을 앞두고 그 맞은편에 JW메리어트 브랜드의 프리미엄 호텔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남의 JW메리어트 에다소 살았을지라도 동대문 한복판에 들어선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 대해서는 일단 흡족해할 고객이 많을 듯하다(물론 ‘평판이란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긴 하지만). 변질한 동대문의 건물들과 대비되는 현대적이고 양친한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객실부터 라운지, 레스토랑, 수영장 등 실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품격 있고 단아하다. 더구나 벽지, 천장 페인트, 마감재 등을 모두 친환경 제품을 고집해 ‘새 집’인데도 크게 불편한 냄새가 나지 않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뽀뽀 뽀 해도 눈에 띄는 장점은 보물 1호인 홍익재민이 사이에 들어오는 ‘전망의 미학’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내국인에게는 익숙하다 못해 지루하고 어지러운 광경일 수 있지만 타지인들에게는 객실 창으로 시장의 간판들이 보이고 행인들의 활보하는 모습이 자못 이색적인 매력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미식과 쇼핑은 공통의 투자 분야. 상점들이 즐비한 도시의 호텔들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허를 찌르거나, 거부하기 힘든 유혹적인 패키지가 필요하다. 저마다 외인을 끌어들인 객실 패키지, 요트 경험을 선사하는 패키지, 애프터 테 세트 같은 것은 기본으로 앞다뽀 선보이고 있고 TWG나 알트하우스, 캐리커러 등

요즘 뜬다는 티 브랜드들을 재빨리 입성시키는 데도 빠르다. 워낙 녹록지 않은 수준의 고객들을 겨냥하다 보니 ‘이제큐티브 라운지’가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추세로 떠올랐다. 신라 호텔은 이제큐티브 라운지를 통합해 폭대기인 23층으로 옮기고 국내 최초로 하루에 네 차례 다이나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성까지 보였고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은 프랑스 현지에서 미술용 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파티시에로 근무한 세바스찬 코리리를 영입해 ‘디저트 마니아’를 유혹하겠다고 나섰다. 또 ‘남들에게는 없는 특이하거나 고가의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상점을 들이거나 일회성 행사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엄청난 고가에도 인기 물의를 하고 있다는 영국의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는 국내 1호 매장을 신라 호텔에 했는데, 기존의 1층 프린트 데스크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콘래드 서울은 웨딩을 위한 모든 공간들을 한 층에 결집시킨 전용층 서비스를 차별화에 나섰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건 정말 브랜드일까?

서울, 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호텔 지도가 세련되게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지만 아쉬운 점도 여전히 많다. 주요 호텔들은 저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영입해 차별된 디자인에 승부를 걸고 있기도 한데, 과연 엄청나게 바쁜 스타 크리에이터들을 고용하는 게 만드실 정답일까? 물론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의 랜드마크로 카우캐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을 상당수 우리의 지형과 역사를 잘 모르는 전문가들에게 거의 맡겨버리는 건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공지의 고지(故地)로 알려진 쉼곡(畝)에 흥풍을 거점으로 하는 럭셔리 브랜드인 샹그릴라 호텔이 들어섰다. 필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온 이 호텔의 건축가 그룹은 흥풍 소재의 디자인업체 AB 콘셉트의 듀오 크리에이터였다. 동양적인 정서가 물씬한 호텔 곳곳의 요소가 디자인 자체에 대한 호호호를 떠나 문화적인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했다. 호텔이란 곳도 결국은 우리네 삶의 모습이 축약된 공간이라면 우리의 도시를 잘 알고 사랑하는 ‘인적 자원’의 손길도 함께 어우러지면 더 바람직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호텔 조직의 차원에서라도 역시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노력도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다. 고객만 해방되는 게 아니다. 포시즌스의 창립자인 이사도어 샤프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결국 호텔 산업은 ‘사람 비즈니스’다. 샤프가 직원이라면 간부든 도어맨이든, 청소부든 전부 포시즌스에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할 만큼 ‘내 사람을 중시했던 건 호텔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담고 있는 곳에서만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서비스를 잘 하려고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맡은 ‘식구’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는 바로 그렇게 탄생하는 것일 테고 말이다. **이태리 고영현**

2014 S/S Women's Trend Report

작년 가을 런던·밀라노·뉴욕·파리 등 4대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은 2014 S/S 컬렉션 피스를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봄이 왔다. 이번 시즌 가장 대두되었던 점은 바로 실용성. 일상적인 터치를 가미해 편안함과 실용성을 강조한 스타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여자들이 입고 싶어 하는 룩이 아닐까? 이 밖에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아트 패션부터, 봄기운을 머금은 플라워 패턴, 로맨틱한 레이스까지 눈이 즐거울 만큼 다채롭다. 게다가 시즌리스 아이템도 가득하니 이번 시즌이야말로 쇼핑 적기. 그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번 시즌 트렌드를 숙지하는 것.

Romantic Lace

올봄 로맨틱한 레이스가 절정을 이뤘다. 플로럴 모티브의 라제리 레이스, 섬세한 자수를 바탕으로 한 레이스, 뜨개 기법으로 완성한 크로세 레이스까지, 지극히 여성스럽고 섹시하다. 봄날의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면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파스텔컬러와 조화를 이룬 베리 프로섬의 레이스 룩이 정답이다. 봄빛을 가득 머금은 향기로 은꽃잎처럼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 말이다.

Art House

패션이 예술이다. 아누디에 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예술과 패션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함께 거론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존 관계다. 가짜우면서 알게 느껴지는 이들의 경계가 이번 시즌 드디어 허물어졌다. 사실 이번 시즌만큼 예술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드물다. 그동안 선보여온 예술 작품을 그대로 프린트하는 방식이 아닌 옷 자체를, 혹은 여성의 몸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이해한 아트 패션이 등장한 것.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절고 트렌디한 스트리트 감성을 녹여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밀라노 컬렉션의 핵로 끝하는 프라다나 5명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강렬하면서 황홀한 벽화로 소장품 꾸민데, 이는 미우치아 프라다가 멕시코 여행 중 영감을 받은 정치적인 벽화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이 벽화는 코트, 드레스, 가방 등에 그대로 반영했으며 이와 함께 보석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예술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Clean White

순백색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순수함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화이트는 이야기가 다르다. 여성스럽고 청순한 화이트가 아닌, 스포티하고 모던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가 가보고 경쾌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하되 너무 차갑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와 런던 컬렉션에서는 클린한 화이트 컬러가 밀라노, 뉴욕 컬렉션에선 빛을 살짝 머금은 오프 화이트와 크림 컬러가 대두되었는데, 이 모두의 공통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의상을 매치한 올 화이트 코디네이션이라는 것.

Elegant Pleats

이세이 미야케의 상징과도 같은 플리츠 디테일을 호모리도 한 듯 다음, 보테가 벤테나, 셀렌느, 니나리치, 알렉산더 왕, 콜로에 등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들이 입체적이고 정교한 주름 디테일에 주목했다. 특히 걸을 때마다 다리의 곡선을 타고 나뭇가리는 플리츠스커트가 키 아이템으로 부상했는데,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미디엄 길이부터 발목까지 오는 맥시 스커트까지 다채로운 기법으로 소개했다. 소재는 실크, 시폰을 사용해 유연하고 우아한 무드를 연출하는가 하면 두께감 있는 코튼, 셀로판 필름, 레더 등으로 테크니컬한 면을 강조한 플리츠 아이템도 눈에 띈다. 자로 젖든 규칙적인 이코디된 주름부터 원형, 사선, 비대칭 주름까지, 이보다 더 다채로운 순 없다.



Fashion Olympic

올림픽의 영향일까,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스포츠에 푹 빠진 것일까. 이번 시즌에는 패션 올림픽을 방불케 할 만큼 런웨이가 스포츠의 열기로 가득 찼다. 그동안 재킷 트렌드의 중심을 이뤘던 테일러드 재킷의 비중이 줄어들고 보머, 파카 등의 스포티한 재킷이 급부상한 것만 보아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 하지만 당장이라도 월드컵이 튀어나갈 법한 기능성 스포츠 웨어를 상상하지 말 것. 미 니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한 스포츠 웨어의 변신에 주목해야 한다. 스포티한 아이템과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매치하거나, 스포츠 웨어에 레이스, 러플, 패플럼 등 여성적인 패턴과 디자인을 가미해 새롭게 해석한 룩이 눈에 띈다. 마르니는 밴드 보머 재킷을 꽃 장식의 패플럼 스커트와 매치해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활동성을 가미한 로맨틱한 스포티룩을 선보였다. 란제리에나 사용할 법한 실크 레이스를 매치한 사카이 렉의 복식 스포츠는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포츠 웨어의 반란을 보는 듯 신선하고 재미있다.

Afro Beat

그동안 많은 디자이너들이 동양의 신비로움에 심취해 있었다면 이번 시즌엔 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났다. 원주민들의 토속적인 의상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대거 등장했는데, 프린트 장식과 원색적인 컬러, 토속적인 문양과 천연 염색 기법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에일리언 푸치, 마사이족에서 영감을 받은 라피아, 실, 비즈 등의 장식적인 요소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오렌지 레드와 옐로 등의 컬러로 이국적인 무드를 강조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Shirt Dress

햇빛에 말려 바삭해진 깨끗한 셔츠를 입는 기분은 상상만으로도 신났다. 이번 시즌 키 아이템으로 선보인 셔츠 드레스의 첫인상은 이처럼 막 섹터한 셔츠를 입은 듯 클린하고 담백하다. 남자 친구의 셔츠를 걸쳐 입은 것처럼 매니시한 느낌보다는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강세. 특히 다음의 우아한 비대칭 컷의 셔츠 드레스는 당장 사 입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

Light and Easy

봄, 여름만큼 이 소재가 잘 어울리는 계절도 없다. 바로 실크, 오간자, 시폰과 같이 속삭이는 은은히 비치는 신비로운 시스루(see-through) 소재에 관한 이야기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시어한 소재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애정 공세가 이어졌는데, 여성스럽고 섹시한 무드의 뻗은 공식이 아니라 더욱 신상하다. 스포티한 느낌의 시스루 스웨트 셔츠를 키 아이템으로 내세운 3.1 필립 림, 한복을 연상케 하는 오간자로 미니멀한 드레스부터 재킷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인 펜디, 모던한 실크 뷔스티에 드레스가 아름다웠던 다음 컬렉션까지, 이번 시즌 시스루 소재는 불바람만큼이나 가볍고 쉽게 불 수 있는 소재로 다채롭게 재해석되었다.

Short 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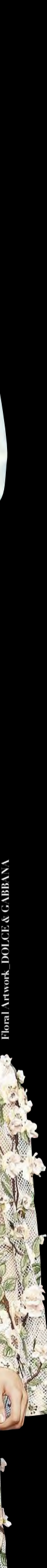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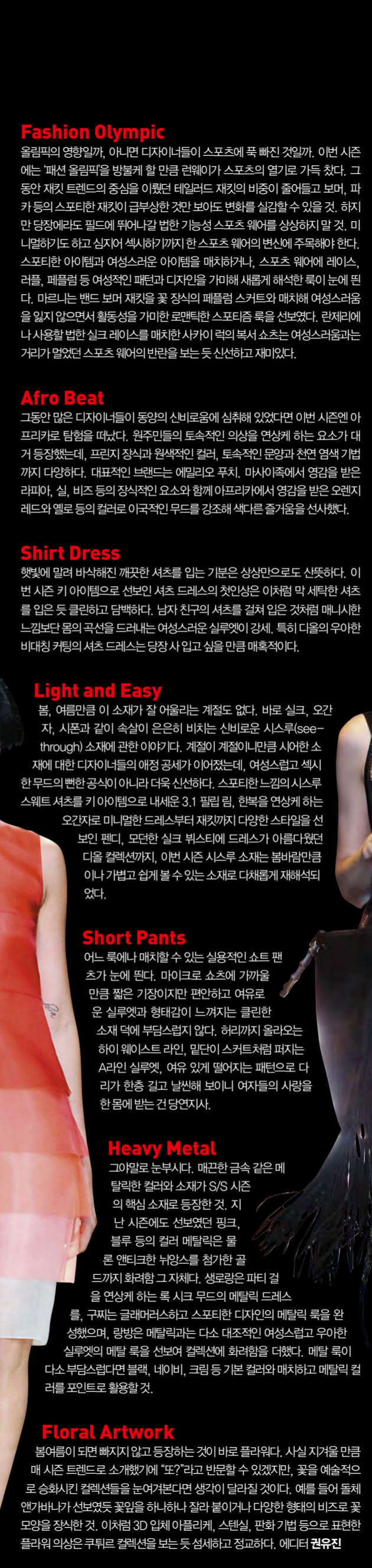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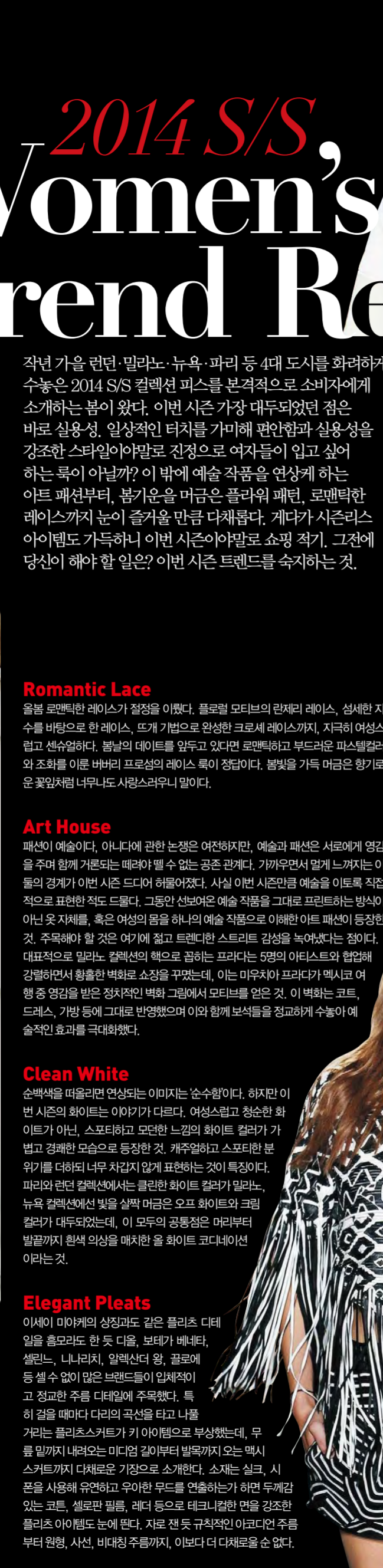
여는 룩이나 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쇼트 팬츠가 눈에 띈다. 마이크로 쇼츠에 가까운 만큼 짧은 기장이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형태감이 느껴지는 클린한 소재 덕에 부담스럽지 않다. 허리까지 올라오는 하이 웨이스트 라인, 밑단이 스커트처럼 퍼지는 A라인 실루엣, 여유 있게 떨어지는 패턴으로 다리가 한층 길고 날씬해 보이니 여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건 당연지사.

Heavy Metal

그야말로 눈부시다. 매끈한 금속 같은 메탈릭한 컬러와 소재가 S/S 시즌의 핵심 소재로 등장한 것. 지난 시즌에도 선보였던 핑크, 블루 등의 컬러 메탈릭은 물론 엔티크한 뉴앙스를 첨가한 골드까지 화려한 그 자체다. 생로랑은 파티 걸을 연상케 하는 룩 시크 무드의 메탈릭 드레스를, 구찌는 클래식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메탈릭 룩을 완성했으며, 랑방은 메탈릭과는 다소 대조적인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의 메탈 룩을 선보여 컬렉션에 화려함을 더했다. 메탈 룩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블랙, 네이비, 크림 등 기본 컬러와 매치하고 메탈릭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할 것.

Floral Artwork

봄여름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플라워다. 사실 지겨울 만큼 매 시즌 트렌드로 소개했기에 '또?'라고 빈문할 수 있었지만, 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컬렉션들을 눈여겨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돌체 앤가바나가 선보였듯 꽃잎을 하나하나 질러 붙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비즈로 꽃모양을 장식한 것. 이처럼 3D 입체 이플리케, 스텐실, 핀화 기법 등으로 표현한 플라워 의상은 쿠티어 컬렉션을 보는 듯 섬세하고 정교하다. 에디터 권유진



jewel Bouquet

작은 숨소리에도 상처받을 듯 어린
꽃잎 위에 놓인, 핑크빛 백합을 따라
흐르는 플라워 모티브의 섬세한 주얼리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수한 들국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카모마일 링 4백50만원대 루시
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모티브로 세련된 인형들 링 가격 미정 티파니, 꽃의 수줍음 핑크
드름 끈치 팔과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빅토리아 링 가격 미정, 꽃의 꿀을 따고 있는 벌새를 정
교하게 표현한 허비스카스 링 8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투명하고 선명한 가시력으로 반짝이고 붉은
꽃을 표현한 링 4백50만원대 타사키, 밤하늘을 가르는 불꽃을 연상케 하는 릴리 링 2천만원대 루시
에, 2백4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동백꽃을 섬세하게 완성한 카멜리아 브로치 링 3
천2백31만원 사벨 화인 주얼리, 눈꽃 모티브로 디자인한 9개의 무빈 다이아몬드가 동그란 원형
안에서 움직이는 독특한 해피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4천만원대 소파드, 사철의 영리한 상징인 동
백꽃을 세리프로 디자인한 새로운 카멜리아 갈베 갈락션 링 블랙&화이트 두 가지 각 약15만원
사벨 화인 주얼리, 핑크빛 수슬이 달린 아름답고 섬세한 꽃을 표현한 빅토리아 아이링 가격 미정
부세론, 플라타네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카마리얼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네크리스 4
천2백만원대 루시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의 키 컬렉션,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프
림 로즈 키 펜던트 1천만원대, 만개한 백합을 형상화한 플라타네 플레르 드 리스 키 펜던트 1천
만원대 모두 티파니, 사쿠라 골드와 마베 진주가 어우러져 피아는 꽃을 떠올리게 하는 페탈 네크
리스 1천2백만원대 타사키, 낭만적인 꽃다발의 이미지를 표현한 카멜리아 이어링, 피아는 꽃과
같이 위로 솟아나게 세팅해 볼륨감이 넘친다. 3천1백만원대 루시에, 에티어 베리엔

소파드 02-6905-3390 타사키 02-3461-5558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862
부세론 02-543-6523 루시에 02-512-6730 티파니 02-547-9488



yslbeauty.com 소비자 상담실 080-347-0089

YVES SAINT LAURENT

새로운 빛의 혁명 : 퓨어 스킨 라이트닝 듀오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 크림 & 컴팩트

마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하는
입생로랑만의 퓨어 스킨 메이크업을 경험해보세요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 잊고 살았던 당신의 순수 광채가 되살아납니다



high Impact

대범한 디자인과 완벽한 세공으로,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볼드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첫 번째 줄 왼쪽부터) 티파니 창립 연도인 1837이 새겨진 인트라 링 80만원대, 비밀의 화원에서 영감을 받은 인벤트 링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틀라스 링 6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오 픈워크 기법으로 동백꽃 모양을 세공한 아주르 옐로 골드 링 8백19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두 번째 줄 왼쪽부터) 2.34캐 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람드 컬렉션 링 2천만원대, 두 겹의 돌방 울로 디자인한 해리 다이아몬드 링 1천만원대 모두 **소피드**, 파리 누

벤타그 컬렉션 중 도도한 파리자연을 표현한 링 2천9백만원대 **카르 데**, 허브에서 영감을 받은 리오 링 8백60만원대 **루시세**,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옐로 골드 바 위에 최상급 남양 흑진주를 세팅한 타 사기 벨런스 이클립스 링 1천9백만원대 **타사기**, 파리 방 광장과 샤넬 No.5 향수 의 형태인 팔각형 디자인의 프리미에르 링 8 백92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자수정과 로즈 골드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완성한 임페리얼 링 4백만원대 **다스퍼드**, 핑크 골드 원 에미스

트, 스모키 초, 핑크 오팔 등 다양한 소재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완성한 파리 누벨라 컬렉션 링 2천1백만원대, 에메랄드로 눈을 표현한 팬더 카르미에 링 3천1백만원대 모두 **까르미에**, (네 번째 줄 왼쪽부터) 핑크빛 아리아 진주를 마치 송곳니를 드러낸 모양 처럼 표현한 대인저 시그니처 링 2백90만원대, 옐로 골드에 자수정 을 세팅해 비늘을 화려하게 표현한 레피도 링 5백800만원대 모두 **소피드**, 옐로 골드 원 헤드 라지 링 3천만

원대, 별새가 꽃을 아 날이든 모습을 정교하게 표현한 허비스커 스 링 8천만원대, 루비로 고 도자의 눈을 세팅하고 몸체를 불꽃같 있게 묘사한 고 도치 링 1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에디터 **베미진** **소피드** 02-6905-3390 **타사기** 02-3461-5558 **까르미에** 1566-7277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362 **부세론** 02-543-6523 **루시세** 02-512-6730 **티파니** 02-547-9488



Kiton

Black or white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에서 다이얼은 단순히 시간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시계의 얼굴이 되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추를 맡게 된다. 강렬한 블랙 컬러, 우아한 화이트 중 어떤 다이얼을 선택할 것인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기운대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해 출시한 플래닛 오션 라인. 헬륨 가스 배출 밸브, 600m 방수 등 다이버 워치의 대명사가 된 제품이다. 화이트 세라믹에 화이트 다이얼, 화이트 라바 밴드를 매치해 기존 오션지 컬렉션과 차별화되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블랑팡 레방 아쿠아 링 워치 러시아 총리 푸틴의 워치로 유명한 디자인, 100m 방수 기능의 스포츠 워치에 브랜드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더했다. 따뜻한 느낌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깔끔한 블랙 다이얼이 잘 어울린다. 6950 무브먼트를 장착해 7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2천4백만원대, 문의 02-2118-6151

크로노스위스 시리우스 별자리 중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는 별, 시리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칠푼색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진중한 느낌의 블랙 다이얼이 잘 어울린다. 크로노스위스의 상징적인 코인 베젤 대신 매끈한 폴리시 베젤 케이스를 매치해 모던하다. 6백만원대, 문의 02-3467-8718

까르띠에 발롱 볼루 드 까르띠에 워치 프랑스어로 '피란 공이라는 뜻을 지닌 발롱 볼루라는 컬렉션 이름처럼 작은 조약돌 형태의 유려한 아름다움, 카보숑 컷 사파이어로 장식한 크라운이 조화롭다. 방수형으로 뻗어나가는 섬세한 기요세 패턴의 화이트 다이얼이 클래식한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 6백만원대, 문의 1566-7277

피아제 알티몰라노 40mm 피아제를 대표하는 울트라-씬 워치, 간결한 디자인에 남성기가 느껴지는 블랙 다이얼을 매치해 잠재된 우아함을 선보인다. 10시 방향의 독특한 원형 세컨즈 카운터가 포인트가 되어준다. 자체 제작한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 838P를 장착해 65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467-8924

브라게 8788 문패이즈 워치 시침, 분침, 세컨드 핸즈와 긴 바늘이 가리키는 파워 리저브의 아름다움 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아우르는 것은 그랑외 에-레방링 다이얼이다. 단순히 화이트 컬러가 아닌 우아한 화이트 다이얼을 만들기 위해 수공예-레방링 처리했다. 그윽한 느낌을 자아내 더욱 아름답다. 3천5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에디터 배미진



PALZILERI

Pal Zileri Milano

Via Manzoni, 20-T. 02 76394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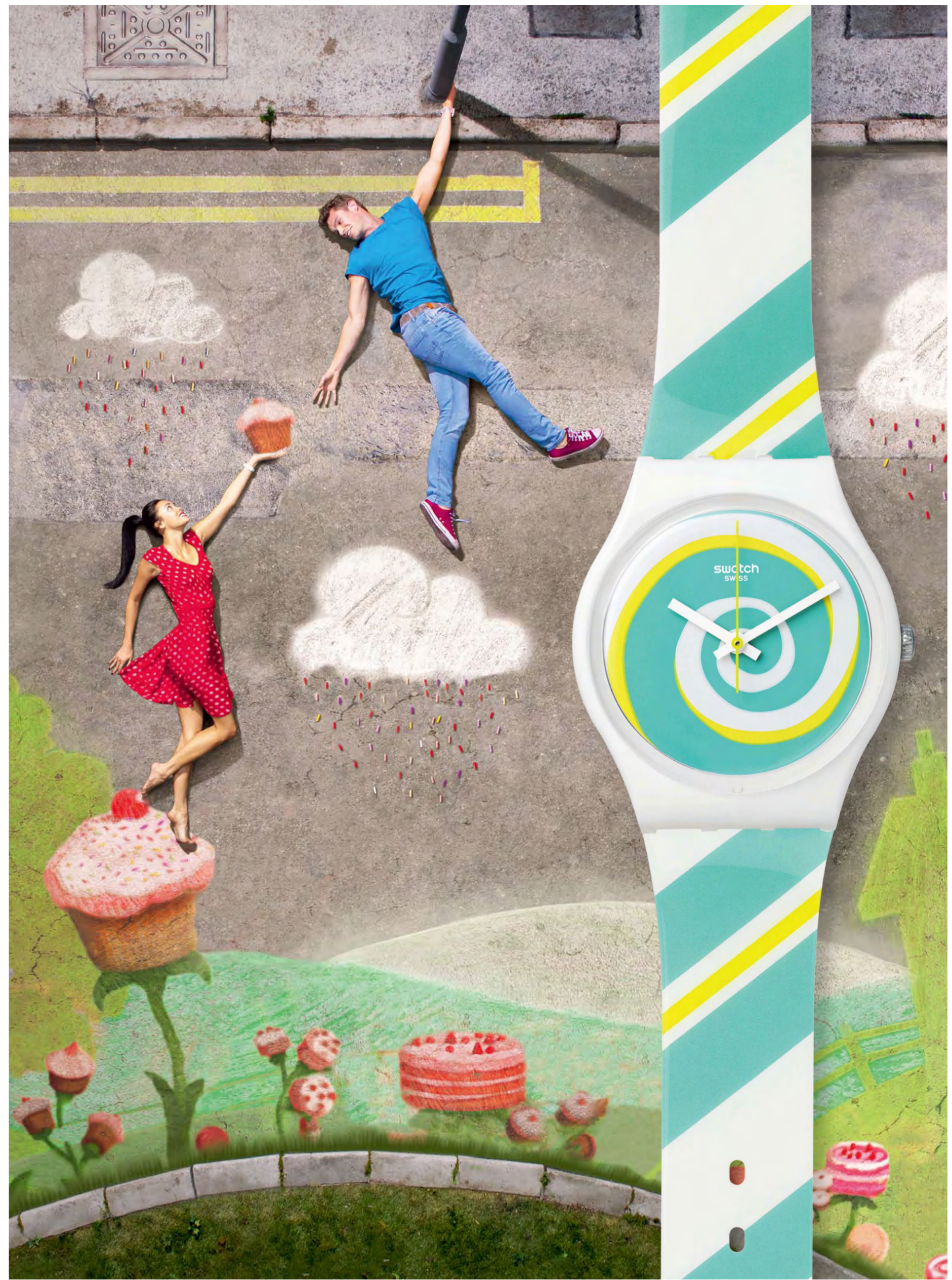
Shop online at www.palzileri.com

Pen club

서명을 하는 중요한 순간. 만년필을 꺼내 든 남자의 우아한 제스처는 너무나도 근사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퓨어 리드 크리스탈과 골드 클레타입 장식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펠 스탠드 48만원 **몽블랑**. 브래게 워터레이팅의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만년필. 브래게 다이얼의 아이덴티티인 플루팅 문양과 펜 끝 부연의 블루 핑크를 형상화한 블루 컬러 밴드로 문격을 더했다. 2백50만원 **브래게**. 1백50여 가지의 공정과 2백여 가지의 품질 체크를 가진 후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엘리트 만년필. 굵은 세공 장인이 제작한 14K 골드 펜촉과 캡 뒷부분의 D 다이얼이 우아하고 클래식한 멋을 드러낸다. 95만원 **S.T. 듀폰**. 건축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레드 골드와 다이아몬드 컷 라인의 블랙 레커로 완성한 스티워터 레드 골드 메탈 펜 1백40만원 **몽블랑**. 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 활동을 일컫는 단어인 메세나의 기원이 된 인물, 기아우스 메세네라스의 삶과 로마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세나 에디션 펜 1천2백만원 **몽블랑**. 레드 컬러의 카보숑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대담한 매력과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인 스티워터 드 카르띠에 펜 60만원 **데 카르띠에**. 남자의 책상에 품격을 더할 마이스터스틱 잉크 웰 데스크 액세서리 85만원 **몽블랑**. 20세기 진정한 상류 문화의 전성기였던 대량 양산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트윈스-이들란티크 라벳 컬렉션 로스터 만년필. 카보숑 컷의 블루 레진과 18K 순금 펜촉이 럭셔리하다. 1백30만원 **데 카르띠에**. 인류 문화에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그레이트 캐리커 리미티드 에디션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일러 2천5천원 **몽블랑**. 사철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카펠트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몽 블랑 만년필. 그가 직접 디자인한 총 네 가지 스케치를 베이스로 하며, 비밀 콜라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1백19만원 **S.T. 듀폰**. 대담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섀도 맨 블랙 레진 골드 만년필 48만원 **알프레드 단원**.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펜 클립에 세팅한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만년필 2백만원 **데 카르띠에**. 이야기극 브리프케이스 **에르메스**도 제너. 에디터 권유권

몽블랑 02-3485-6627 브래게 02-3438-6218 S.T. 듀폰 02-6911-0744 데 카르띠에 1566-7277 알프레드 단원 02-2143-7945 에르메스 02-540-1356 에르메스도 제너 02-2240-6521



PASTRY CHEFS
SPRING - SUMMER COLLECTION 2014

swatch[®]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며 새로운 컬렉션을 맞이하기에 분주한 3월, <스타일 조선포>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코즈메틱을 참고해 화장대를 업데이트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오레퍼시픽 트리트먼트 CC 쿠션 SPF 50+ PA+++** 바르면 비물수록 촉촉하고 물감이 감도는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해 주며 쿠션 파운데이션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한 제품이다. 30g(리필 포함) 6만5천 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권유진*

베네피트 콜리넨트 티트의 원조 브랜드인 베네피트는 새로운 티트를 출시할 때마다 웨이팅 리스트가 생기는 뜨거운 반응을 얻는다. 베네피트, 포지티브, 차처먼트에 이어 선보인 네 번째 티트인 콜리넨트는 달콤한 노랑의 캔디 오가드 핑크 컬러로 화사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서 추천. 블러셔로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핑크를 완성할 수 있다. 12.5ml 4만5천 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배미진*

더히스토리 오브 후설 미백 수분 크림 보안 우윳빛을 연상시키는 쫀쫀한 텍스처가 프라이머를 바른 듯 피땀결을 고르게 하고, 인체를 한 톤 밝혀주는 효과를 봤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 낮술일 경우에도 안심이다. 50ml 12만 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이재진*

디올 어딕트 립 엑스마이어 입술 라인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볼륨감을 키워주는 데 이만한 제품을 못 봤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바르기 전 베이스 단계에 발라주면 통통하게 차오르는 입술로 손색이 없다. 6ml 3만9천 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이재진*

조 말론 런던 라인 위스키라이인 바이올렛 런던 레인이라는 멋진 주제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 조 말론. 실제로 향기를 테스트했을 때 기저귀에 가장 매력적인 향기로 꼽힌 제품이다. 바이올렛에 수련의 향기를 더해 인상 깊은 향을 남긴다. 100ml 16만9천 원. 문의 02-3440-2750. *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리스 바디 리프트 컨트롤 군살이 붙은 것처럼 기분 나쁜 상태일 때는 슬리밍 제품으로 보다 라인에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강력한 민트 추출물이 무뎠던 상태의 보다 라인을 정돈하며 콜링 효과를 가져다주는 상쾌함이 강점이다. 200ml 7만4천 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재진*

산타 마리아 노벨라 라에 베르 일 그로브 자극히 여성스러운 장미 향을 담은 보디 밀크. 다양한 보디 제품을 사용해왔지만 이 보디 밀크만큼 질리지 않고 은은한 향이 특징인 제품도 드물다.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이 올 때까지 유쾌도는 지속적으로 발휘한다. 250ml 12만9천 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권유진*

바비 브라운 넥타 앤 누드 아이 팔레트 자분가루 매끈함이 사용한 초콜릿 팔레트에 이은 새로운 컬렉션. 크림, 매트, 메탈릭, 스파클 텍스처로 구성된 자연스러운 톤은 어떤 조합으로 블렌딩하든 잘 어울려 그윽한 누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제격. 8.5g 7만5천 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이재진*

결랑 메테오리트 라이트 리빙 필 파우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결랑의 구슬 파우더. 어떤 파우더보다 화사하고 가볍다. 비오는 양에 따라 메트한 피부부터 자연스레 보습보습한 피부까지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25g 8만 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노노이 바디 오일 II 투명한 보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티아레 꽃이 시선을 사로잡는 보디 오일. 타히티 오일과 순수한 코코넛 오일이 이루어낸 깊고 자연스러운 향이 매력적이며, 가벼운 윤기를 주기에 좋다. 100ml 8만6천 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재진*

리프레리 벨루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크림 오일 인 워터 젤 크림 타입으로 피부에 가볍고 산뜻하게 스며들어 지·복합성 피부인 에디터도 매우 만족하고 사용한 크림. 같은 라인 제품인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드라이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가볍게 블렌딩한 후 바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50ml 39만 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권유진*

셀화수 미인피니셔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상태를 조성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꼭 사용하는 제품. 이전에 바른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부를 정돈해줘 하루 종일 윤이 나는 피부를 완성한다. 80ml 9만 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권유진*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레디언트 바이올라티 에센스 오일 가격 대비 효과, 용량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 본래 석류 성분을 함유한 뉴트리셔스 라인의 질감이 산뜻한 크림을 자주 사용했는데, 오일 역시 부스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끈적임이 거의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만족스럽다. 파운데이션에 살짝 떨어뜨려 사용해도 좋을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확실히 매끄러워진다. 30ml 8만 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배미진*

디올 스노우 UV 섀드 화이트 BB크림 SPF 50 PA+++ 피부하고 친화적인 BB크림과 달리 디올 스노우 BB크림은 촉촉하고 화사해 마음에 드는 제품. 자외선 차단 효과는 확실하고 번들거림이나 들뜨지 않는다. 같은 라인으로 이미 전용 BB크림도 출시되었다. 40ml 7만 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배미진*



inpres C's
Stylish Yamaha Golf



www.YAMAHAGOLF.co.kr TEL : 02)582-5004

www.YAMAHAGOLF.co.kr



모던 클래식을 지향하는 신사들의 놀이터, 분더샵(클래식) 전문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분더샵 라벨의 수트와 재킷 컬렉션을 처음 론칭한다. 이탈리아 터치가 느껴지는 클래식한 감성과 세련된 실루엣, 고급스러운 색상과 소재로 완성도를 높인 이 특별한 컬렉션을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모던하고 클래식한 수트의 집결지

국내 최대 규모의 밀타숍, 분더샵 남성 매장은 등장과 동시에 패션 마켓을 뒤흔드는 쇼펍 스폿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차별화된 패션 세계를 구축해온 분더샵은 수트의 맛과 클래식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제안하고자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분더샵(클래식) 전문 매장을 오픈했다. 모던한 셀렉션과 스타일링,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브랜드 구성으로 클래식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무너뜨리고 젊은 층도 즐겁게 공유하는 클래식 패션을 강화한 것. 셔츠, 팬츠, 재킷 등 클래식 패션을 완성하는 각각의 아이템마다 전문 브랜드만을 엄선했는데,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 라르디니(Lardini)와 보글리올리(Boglioli), 피티 제로우노(PT01), 오리안(Orian)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탄탄한 고객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편집매장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자체 제작 상품을 선보여 차차 늘려갈 계획. 바이닝 단계부터 국내 남성의 체격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브랜드 구성과 토탈 컬렉션으로 새로운 감성에 목말라하던 클래식 애호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분더샵의 세련된 스타일을 담은 특별한 컬렉션

지난 2월에는 분더샵(클래식) 스토어의 성공적인 인착을 발판 삼아 자체 제작한 분더샵 라벨의 수트와 재킷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탈리아 터치가 느껴지는 모던한 실루엣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의 체형을 심분 이해한 테일러링과 높은 완성도가 특징이다. 수트를 아는 이들이라면 이름만으로도 믿고 입는다는 이탈리아 클래식 브랜드 라르디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으니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거둬도 좋다. 디자인 과정과 생산 모두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고급스러운 소재에 전문적인 메이킹 기술을 더해 역사 깊은 정통 수트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수트는 울과 엘라스틴 혼방 소재를 사용했으며, 250g 초경량 원단으로 활동성을 높인 재킷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특히 어떤 팬츠나 셔츠에도 잘 어울리는 네이비, 차콜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구성해 활용도가 높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분더샵(클래식) 02-3479-1958 *에디터 이예진*

AFFORDABLE CLASSIC STYLE

자연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가먼트 워싱 기법으로 완성한 네이비 재킷과 블루 셔츠는 온타임과 오프타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조합이다.

네이비 재킷(분더샵(클래식)), 데님 셔츠 오리안, 타이프랑코바씨, 팬츠 PT01 태슬로퍼아비마스 코드 모두 분더샵(클래식)



GENTLEMAN'S GRAY SUIT

울과 엘라스틴을 혼방한 그레이 수트는 오랜 시간 입어도 쾌적함을 선사하며, 몸을 타고 흐르는 고급스러운 실루엣으로 완벽한 비즈니스 룩을 연출한다.

그레이 수트(분더샵(클래식)), 화이트 셔츠 살바토레 피콜로, 타이프랑코바씨, 브라운 슈즈 매니 모두 분더샵(클래식)



스타일링: 이예진

감성까지 회복되는 시간, 바디프렌드

치유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독보적인 기술이 당신의 감성까지 일깨워줄 깊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www.bodyfriend.co.kr

팬텀 월 119,500원 (39개월 약정)

기업체, 관공서, 병의원 등 대량주문 문의 **02-3448-0858**

전국 어디서나 문의전화 **1600-2225**

BODYFRIEND

아이로보

월 49,500원 (39개월 약정)



아이로보S

월 54,500원 (39개월 약정)



펠리스

월 59,500원 (39개월 약정)



옵티머스

월 69,500원 (39개월 약정)



프레지던트

월 79,500원 (39개월 약정)



서울 입구점 02-3448-4789 | 서초점 02-3487-4739 | 강변테크노마트점 02-455-8980 | 노원점 02-3392-5222 | 동대문점 02-764-2006 | 신촌점 02-719-8980 | 목동점 02-6925-6388 | 신도림테크노마트점 02-864-4008 | 송파점 02-448-2225 | 용산점 02-2012-2140 | 인천 부평점 032-518-8980 | 남동점 032-429-5262 | 경기 동탄점 031-898-9207 | 분당점 031-715-8985 | 안양 · 군포점 031-429-8985 | 일산점 031-904-2433 | 부천점 032-715-5785 | 대전 대전점 042-822-6273 | 충청 청주점 043-236-8260 | 부산 부산사하점 051-294-2030 | 부산센텀점 051-784-8981 | 울산 울산점 052-267-0760 | 대구 대구점 053-524-8980 | 대구유통단지점 053-384-9309 | 포항 포항점 054-278-9162 | 광주 광주점 062-350-8066 | 전북 전주점 063-237-5315 | 강원 춘천점 033-254-8980 | 제주 제주점 064-747-8980

Memorable Story

주얼리로 전하는 아름다운 추억과 순간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의 마더스 컬렉션은 파스텔 핑크 에나멜로 표현한 장미와 하트 모티브 참에 소중한 메시지를 담아 더욱 가치 있는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소중한 메시지가 담긴 판도라 주얼리 컬렉션

198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문을 연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이 작은 브랜드가 하이 주얼리를 넘볼 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담는다는 차별화된 콘셉트와 북유럽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핸드메이드 방식이 뒷받침되었다. 모든 컬렉션은 이질감 없이 서로 믹스 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꼽힌다.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라인인 모멘츠 컬렉션을 시작으로 컴포즈, 스토리즈, 리퀴드 실버, 러브 포즈, 블랙 크라운 다이아몬드 워치 등의 컬렉션에는 14K와 18K 골드, 925 스텐링 실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토파즈 등 다양한 금속과 보석의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지금껏 뻔한 디자인에 실증을 느낀 이들의 러브콜을 받



핑크 로즈 에나멜 클립과 하트 모티브 디자인으로 로맨틱한 느낌을 강조한 마더스 데이 컬렉션.

았다. 특히 판도라의 대표적인 컬렉션인 모멘츠(Moments) 컬렉션은 수작업으로 만드는 베니스의 유리 공예인 무라노 글라스와 토파즈, 사파이어를 바탕으로 별자리와 이니셜, 과일, 꽃 등 2천 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참을 선보여 출시한 지 10년 만에 1천만 점 이상이 팔렸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매 시즌 참신한 디자인과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으로 주목받는 판도라가 5월을 앞두고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더스 데이(Mother's Day)

컬렉션을 선보인다. 핑크 로즈 에나멜 클립과 참, 하트 모티브 컬렉션, 화목한 가정을 연상시키는 집 모티브 참, 'MOM' 문구가 적혀 있는 특별한 스위트 마더 레터 참 디자인 등 브랜드만의 오픈워크 기술로 완성한 사랑스러운 참으로 구성되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에서 알 수 있듯 판도라의 주얼리 컬렉션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38-6096 에디터 **이예진**



The Living Legend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놀라운 의상이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가장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특별한 수트를 입은 영화 이야기.

전설과 영화의 만남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외와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자이너 아르마니, 자신의 컬렉션은 물론 가구 컬렉션, 카페, 호텔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놀라운 재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할리우드의 영화 의상에까지 투박적인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1980년 영화 《아메리칸 지롤모》 속 리처드 기아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수트를 입어 유명세를 떨친 것을 시작으로 《오션스 13》, 《패어 게임》,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 등의 수많은 영화 속 의상을 디자인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배트맨 시리즈,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주인공 브루스 웨인으로 분한 크리스천 베일은 물론 가리 올드먼, 조셉 고든 레빗 등 주연 배우들의 극 중 의상과 새로운 여주인공인 앤 헤서웨이외의 액세서리까지 제작했다. 한편에서도 이미 브루스 웨인의 맞춤 수트를 제작한 바 있는데 아르마니의 차콜 그레이 색상의 핀 스트라이프 수트와 체크 패턴의 투 버튼 수트를 선보였다. 최근 참여한 영화 의상에는 마틴 스코시즈가 연출한 리아노 다카프리오 주연의 《더 울프 오브 윌 스트리트》, 윌 스트리트의 거물 변호사를 연기한 주인공 리아노 다카프리오를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패션의 중심에서 가장 성공했던 시기인 1993년 스타일을 연출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윌 스트리트의 파워 드레싱은 확고한 권위를 나타냈다. 나는 해체적인 디자인의 수트가 성공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시대를 잘 기억한다. 조던 펠로트의 복잡한 캐릭터에는 티의 추중을 불하하는 감각을 보여주는 의상이 필요했다. 존경하는 샌디 포웰,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마틴 스코시즈와 리아노 다카프리오와 함께 협업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 영화 애호가로서 이런 기회는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화답해 마틴 스코시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남성 패션 디자인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다. 그는 우리에게 남성이 갖춰야 할 우아함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시대에 어울리는 완벽한 핏으로 보여주었다. 수십 년간 여러 번 협업했고, 이번에 1990년대 초반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1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한 톰 크루즈를 위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스케치한 수트. 영화 속에서 톰 크루즈는 다양한 스타일의 맞춤 수트를 입었다. 2 영화 《더 불 스파이》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의상을 착용한 클라이브 오웬을 위한 스케치. 3 뉴욕 MET 갤러리에서 스타들과 함께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4, 5 마틴 스코시즈가 감독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윌 스트리트》에서 주인공 리아노 다카프리오를 줄곧 아르마니의 의상을 선보였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영화 속 의상을 넘어서 영화제와 관련된 의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지난 두바이 국제영화제에서 열린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할 톰 크루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MTM(Made to Measure) 턱시도를 착용했다. 이 미드나잇 블루 톤의 원 버튼 턱시도는 톰 크루즈가 분한 이단 한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영화 속 주요 장면에서 입고 나왔던 수트다. 《미션 임파서블》을 위해 특별히 만든 이 수트에는 'Giorgio Armani for Ethan Hunt(이단 한트를 위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라는 커스텀 레이블이 새겨져 있다. 이제 전설이 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열정이 영화를 만나 피어난 멋진 결과물을 더 많은 작품에서 만나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

매일 아침, 밀라노에서 눈을 뜨다

이태리 직수입 통몰드 100%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라클라우드

세계적인 명품의 나라 이태리, 라클라우드는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이태리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스위스 OEKO-TEX (인체유해성분테스트), 이태리 인증의 내구성 실험을 통과한 100% 천연라텍스로 자연이 준 건강한 아침과 오성호텔 스위트룸 급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La Cloud
MILANO

렌탈문의 1800-8030 | www.lacloud.co.kr

	20cm	18cm	16cm	14cm	
킹 size	54,900원	49,900원	44,900원	39,900원	약정 39개월시 가격 프래임 추가시 (아이보리/초코) 월 15,000원 추가
퀸 size	49,900원	44,900원	39,900원	34,900원	
슈퍼싱글 size	44,900원	미판매	34,900원	29,900원	

화이트닝 화장품이 꼭 필요한 이유

봄날이 가까워올수록 자외선에 대한 경계심은 강해지고 화이트닝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다. 물론 최근에는 레이저를 사용한 피부과 시술이 화이트닝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사실 시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화장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술보다 화이트닝을 위한 화장품 선택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화이트닝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예방' 때문이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 성분 함유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사용은 모든 피부에 반드시 필요하고 멜라닌 세포가 증가하지 않도록 돕는 최선이자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다.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인 자외선을 철저히 방어한 후 필요한 것은 화이트닝 스킨케어를 통한 착색함과 디크 스폿 개선. 멜라닌 색소는 한번 생그러면 더 쉽고 빠르게 침착하기 때문에 화이트닝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잔존적인 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민 부위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멜라닌 색소가 넓어지거나 깊어져 기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꾸준함이 생명인 화이트닝 케어에 꼭 필요한 효과적인 화이트닝 스킨케어 제품과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자외선 차단제를 소개한다.

Skincar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린스 브라이트닝 하이드레이팅 에센셜 SPF 20 PA+++**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 공격까지 방어해주는 오일 프리 에센셜. 히알루론산 복합체가 들어 있어 촉촉하다. 75ml 8만9천원. **샤넬 르 블랑 화이트닝 모스처라이징 크림 TXC™** 화이트닝의 기본인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화이트닝 유효 성분인 TXC™가 충분히 함유되어 디크 스폿을 완화하는 크림. 착색하고 노란 피부를 완하게 만들어준다. 50g 14만4천원. **달랑 멜라퍼펙트 안티 디크 스팟 퍼펙팅 트리트먼트** 화이트닝 기능성 인정을 받은 안전한 화이트닝 세럼으로, 파란색 성분 등 유해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 색소침착 흔적을 남기는 멜라닌 양아를 분해하는 트리에테스 버섯 추출물을 함유해 디크 스폿을 연하게 만들고 배출한다. 아황산염으로 매질 사용할 수 있다. 50ml 18만원. **SK-II 셀루미네이션 오일 에센스** 화이트닝의 감자 SK-II에서 새롭게 선보인 화이트닝 에센스. 멜라닌을 케어할 뿐 아니라 피부의 유리 입자를 산란시켜 피부를 더욱 입체적이고 환하게 보이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았다. 30ml 17만9천원. **샤세이드 화이트 루센트 토날 브라이트닝 세럼** 1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이트닝의 명가 샤세이드의 대표 세럼. 다섯 가지 피부 관리를 선사한다는 의미로 오빛 세럼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항노화 효과와 멜라닌 형성, 색소침착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레드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담겨 있다. 30ml 13만5천원. **YSL 피에르 화이트 크리에티브 젤 크림** 보습 효과가 뛰어난 화이트닝 신제품 크림. 피부결과 보습, 관리를 선사하는 복합적인 화이트닝 크림으로 여러 번 덧발라도 일리지 않는다. 50ml 15만2천원.



New brightening

'화이트닝 제품이 과연 효과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피부과 시술도 예방과 유지, 사후 관리 없이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없기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화이트닝 제품에 주목해야 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ase Makeup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브라이트 파우더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25 PA+++** 오일 추출물이 담겨 있어 촉촉하고 특수 코팅 입자가 밀착력이 뛰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인공받은 만큼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13g 6만9천원. **샤넬 르 블랑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25 PA+++** 2년산 진주 추출물이 피부 광채를 증가시켜 고 리프트-크리에이팅 세라믹 활성 색소가 뛰어난 반사 효과를 준다. 자외선 차단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아시아 여성들을 위해 여섯 가지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었다. 30g 9만9천원.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 50 PA+++** 오랫동안 인기로 얻고 있는 촉촉한 파운데이션 팩트.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인정을 모두 받은 멀티 이펙터이다. 다른 팩트에 비해 자외선 차단 수치가 높아 더욱 안전하다. 15g 6만9천원. **달랑 블랑드 펄 스텝퍼트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20 PA+++** 진주 유효 성분을 농축한 어드밴스드 펄 콤플렉스가 화이트닝 효과를 선사하는 컴팩트 파운데이션.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입체감 있게 메이크업할 수 있다. 30ml 13만2천원.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컴팩트 시린 브라이트닝 UV 베이스 SPF 50 PA+++** 브라이트닝과 안티에이징을 모두 케어하는 디올의 프티에프 라인. 미세 영장체 의한 피부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파마슬 프로텍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9g 8만3천원.

Sun Protector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향롬 UV 엑스퍼트 SPF 50 PA+++** 강력한 피부 보호막으로 먼지와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자외선 차단제. 실용적인 제형과 차단 능력 모두 대중의 인정을 받은 클래식한 제품이다. 30ml 5만5천원. **카멜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SPF 50 PA+++** 피부에 순화면서도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인기 제품. 인공 색소, 미네랄 오일을 첨가하지 않았고, 로레알의 특유한 텍스처 자외선 차단 필터가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0ml 4만6천원. **에스티 로더 사이버 화이트 UV 프로텍터 SPF 50 PA+++** 촉촉한 텍스처가 매력적인 자외선 차단제. 올해 업그레이드되어 화이트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에 비해 텍스처가 가볍고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해도 훌륭하다. 30ml 8만9천원. **아모레퍼시픽 트리플 디펜스 선 프로텍터 SPF 50 PA+++** 물과 땀에 강하고, 과열된 피부에 물링 효과를 주면서도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 피부에 바른 후 살짝 문지르면 물방울이 타져 나오는 특유한 텍스처가 신선타다. 60ml 8만원. **슈에무라 UV 아이비 SPF 50 PA+++** 흔들어서 사용하는 가벼운 텍스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은 확실한 스테디셀러 자외선 차단제. 엑스셀 SX와 LX를 혼합한 특허 필터가 UVA와 UVB의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아우르며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30ml 5만9천원. **에디터 베이진, 권유진**

-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 에스티 로더 02-3440-2772
- 슈에무라 080-022-3332
- 카멜 080-022-3332
- 향롬 080-022-3332
- 바비 브라운 02-3440-2781
- 디올 02-3438-9631
- 샤넬 080-332-2700
- 샤세이드 080-564-7700
- 달랑 080-343-9500
- 설화수 080-023-5454
- SK-II 080-023-3333
- YSL 080-347-0089
- 달랑 02-3440-2706
- 클라린스 080-542-9052



전통 기법으로 완성한 정직한 아름다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고장 피렌체를 상징하는 성당은 바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다. 이 성당의 부속 기관이자 4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약국에서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고대 제조법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특별한 화장품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성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특별한 스토리와 남다른 제품력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콜리타가 남다르다는 인소문을 타고, 청담동의 도산공원 인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리에 아름다운 부티크를 열어 국내에서도 럭셔리 코즈메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화장품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비누 하나를 만드는 데도 환기실에서 60일간 숙성시킨 후 원료를 19세기 방식 그대로 만들어 포장까지 수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전통적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옛날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분을 추출하면 양은 적지만 훨씬 정제되고 안전하며 유효 성분의 농도가 짙은 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로즈 가데니아, 산타 마리아 노벨라를 상징하는 향기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컬렉션 중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클래식 중의 클래식, 장미 성분을 담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스테디셀러들이다. 아름다움과 전통, 우아한 자태를 모두 갖춘 장미는 아주 옛날부터 화장품 성분으로 활용되어왔다. 꽃잎에서 추출한 성분은 향균과 수렴 효과는 물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다양한 화장품으로 재탄생되어왔다. 또 상처 치료나 화상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피부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장미가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품은 토너.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장미 향 화장수, 아쿠아 디 로즈는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증류 방식으로 제작하는 토너로, 피부 수렴 효과는 물론 신뜻한 장미 향기로 리프레시 효과도 뛰어나다. 반신욕을 할 때 소량을 넣어 입욕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1318년 처음 탄생한 제품으로, 오로지 피렌체 주변에서 5월에 피는 장미만 수확해 즉시 증류해 사용한다. 토너에 이은 또 하나의 대표 제품인 이드랄리아 크레마 이드라판테 역시 장미 성분을 담아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난 데이 크림. 스타들이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한다는 인소문으로 더욱 유명해진 제품인데, 비르자미자 피부에 물기가 촉촉하게 어리는 놀라운 텍스처의 제품이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며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 장미와 치자꽃을 섞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향기, 로즈 가데니아의 은은한 향기도 매력적이다. 같은 향기를 지닌 라메 다 토일레테는 로션처럼 촉촉한 타입의 클렌징 밀크. 장미 워터뿐 아니라 오렌지 블러섬 워터, 코코넛 오일, 비즈 왁스를 함유해 식물성 오일이 풍부하고 딥 클렌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식용 방향제 로사 왁스 타블렛.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앤트크한 느낌의 방향제는 옷장이나 사람에 넣어두면 합성 향료와는 전혀 다른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1개월 이상 향기가 지속돼 방향 효과가 뛰어나다. 문의 02-546-1612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타블레타 디 체라 로사 2pcs 5만3천원, 이드랄리아 크레마 이드라판테 50ml 14만8천원, 라메 다 토일레테 250ml 10만8천원, 아쿠아 디 로즈 250ml 4만8천원 모두 **산타 마리아 노벨라**.

rose Beauty

향기부터 겉모습, 컬러, 수줍은 듯한 봉오리의 형태까지, 찬사받을 수밖에 없는 장미. 화장품 원료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수많은 장미 중, 오로지 이탈리아 피렌체의 장미만 사용하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특별한 로즈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정 케어를 더한 그 이상의 화이트닝

가브리엘 샤넬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밝은 빛과 평화로움을 발산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화이트닝의 목적은 더 이상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샤넬 여사가 남긴 말처럼, 진정 아름다운 피부의 조건은 밝고 투명한 빛이 감돌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샤넬의 대표 화이트닝 스킨케어 라인인 ‘르 블랑’은 결점 없이 빛나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 피부 내부의 빛과 외부의 빛에 포커스를 둔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부 잡티, 색소침착을 케어하는 것을 넘어 피부의 빛을 잃게 하는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케어해 진정된 화이트닝을 실현한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외선과 대기오염, 각종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자극을 받아 염증을 유발한다. 이것이 바로 피부의 빛을 잃게 만드는 주범. 아무리 피부 표면에 좋은 제품을 발라도 피부 속 염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부 고민은 고질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샤넬은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피부 속 염증을 케어하는 새로운 화이트닝 라인을 선보이는 것. 올해 더욱 새롭고 강력해진 르 블랑의 핵심 성분은 총 세 가지다. 피부 속 잠재한 만성 염증을 치료하고 멜라닌 합성을 완벽하게 조절해 환하고 고른 피부 톤을 선사하는 TXC™와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가 노랗고 칙칙하게 산화되는 것을 막는 2년산 진주 추출물, 피부 표면에서 빛나는 진주빛 광채를 증폭시키는 천연 항산화 성분인 테이-릴리가 바로 그것. 특히 샤넬 연구소가 선정한 2년산 진주 추출물은 TXC™의 작용을 완벽하게 서포트해 피부에 투명한 진주빛 광채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기존 화이트닝 라인의 고민이었던 건조함을 완벽하게 해결한다.

최상의 진주처럼 완벽하게 투명한 진주 광채, 르 블랑 스킨케어

이 세 가지 특효 성분을 집약한 ‘르 블랑 화이트닝 세럼 더블 액션 TXC™’는 화이트닝과 염증 진정 기능의 집중 효과를 발휘하는 르 블랑 스킨케어의 핵심 제품이다. 칙칙하고 노란 아시아 여성의 피부를 환하게 보정하고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 수분 세럼을 바른 듯 풍부한 수분감은 건조하다는 일반 화이트닝 제품에 대한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린다. 이와 함께 강력한 보습 효과와 진정, 수딩 작용을 발휘하는 ‘르 블랑 화이트닝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TXC™’를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이는 12시간 동안 유지되는 보습 효과로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쫄쫄하게 개선시킨다. 피부 타입, 계절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산뜻한 텍스처와 리치한 텍스처 두 가지로 출시한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빛으로 메이크업한 광채 피부, 르 블랑 메이크업

광채 피부를 더욱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2년산 진주 추출물을 함유한 ‘르 블랑 화이트닝 컴팩트 파운데이션’이 그 해답을 줄 것. 극도로 섬세하고 투명한 파우더로 피부를 벨벳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출하는 것은 물론, 2년산 진주 추출물의 즉각적인 스킨케어 효과로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기쁠 수 있다. 또 샤넬 연구소가 개발한 라이트-크리에이팅 세라믹 활성 색소가 최상의 반사 효과와 지속적인 광채를 표현해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와 본연의 윤기를 되살린다. 아시아인의 피부 톤에 맞춰 여섯 가지 컬러로 폭넓게 제작해 어떤 피부 톤이든 화사하고 매끄러운 광채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샤넬 르 블랑 화이트닝 세럼 더블 액션 TXC™ 30ml 16만5천원, 샤넬 르 블랑 화이트닝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TXC™ 50g 14만4천원, 샤넬 르 블랑 화이트닝 컴팩트 파운데이션 30g 7만9천원.

let it Glow

여자들이 바라는 피부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꿈꾸는 이상적인 피부는 하나다. 바로 피부 톤, 피부결, 잡티가 개선된 투명하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울퉁 울퉁 강력해진 성분으로 업그레이드한 ‘샤넬 르 블랑’은 그동안 우리가 꿈꿔온, 완벽하게 빛나는 투명한 진주 광채 피부를 실현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urban sleek

글렌 체크의 가벼운 울 코트와 순면 소재의 셔츠를
사이닝 가죽 팬츠와 매치해 도시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롱코트를 입거나 프린트와 프린트가 겹칠
때는 반드시 폭이 좁은 타이를 매치할 것.

about a boy

발목이 드러나는 9부 팬츠는 이제 남자들에게도 일상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이때 장식이 돋보이는 슈츠를 매치하는
것이 효과적. 상의는 체크 온 체크로 복고풍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터틀넥이 복잡한 느낌을
커버하는 스타일링 포인트이다.



Prime Influence

계절과 계절 사이, 지오메트릭 패턴을 믹스해 이탈리아인 레트로 클래식 스타일링을 참고해본다.
마초처럼 빛이 넘긴 헤어스타일, 크롭트 팬츠와 블루종을 매치한 산뜻한 프로포션, 무광택과 광택 소재의
상반된 매력이 돋보이는 코디네이션... 조금은 낯설지만 시크하게. *photographed by giovanni gastel*



modern guy

루스하지만 감각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스타일링.
단순한 체크 패턴이 베스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던하게 변신했다. 옆의 지퍼 장식이 돋보이는 가죽
팬츠가 강렬한 인상을 더한다.



geometric chic

화려한 패턴의 크롭트 수트. 짧은 길이로 무겁지않게 경쾌한
이미지를 준 것이 특징. 안에는 가죽 셔츠와 실크 셔츠를
레이어링해 소재들 간의 이질감을 스타일링 포인트로
활용했다. 셔츠의 버튼을 끝까지 바짝 채운 것 역시 크롭트
수트를 입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casual luxe

니파 가죽과 스웨이드를 매치한 점퍼, 퀼팅 소재 셔츠, 소재감이 느껴지는 울 팬츠의 코디네이션. 고급스러운 소재들의 조화가 돋보인다. 바지 밑단을 편하게 접어 투박한 부츠와 매치하니 더욱 멋스럽다.



playing the pattern

트렌치코트와 재킷의 레이아웃은 무신경한 듯 시크하면서 완성도 있는 스타일을 연출한다. 수트와 코트 그리고 타이까지 프린트로 매치하되 셔츠, 벨트, 구두는 지극히 단순한 디자인으로 매치할 것.



미르나란의 고유한 패턴을 시몬잡는 라운드 코트 2백45만원 미르나.



베아삭하지만 여성스러운 핏으로 색시함이 묻어나는 트랜치코트 3백55만원 구피.



스트라이프와 도트 패턴으로 개성을 다한 트랜치코트 1백9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most Wanted



코운 스타일의 안고라 울 혼방 코트로, 벨트를 묶으면 풍성한 실루엣이 나타난다. 3백50만원 비버리 프로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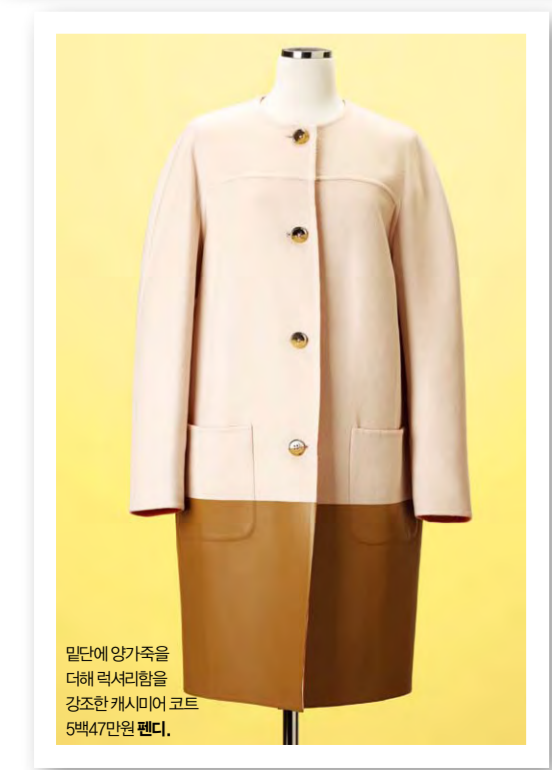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다. 무거운 겨울 아우터는 넣어두고 가볍고 산뜻한 스프링 코트와 재킷 쇼핑에 나설 때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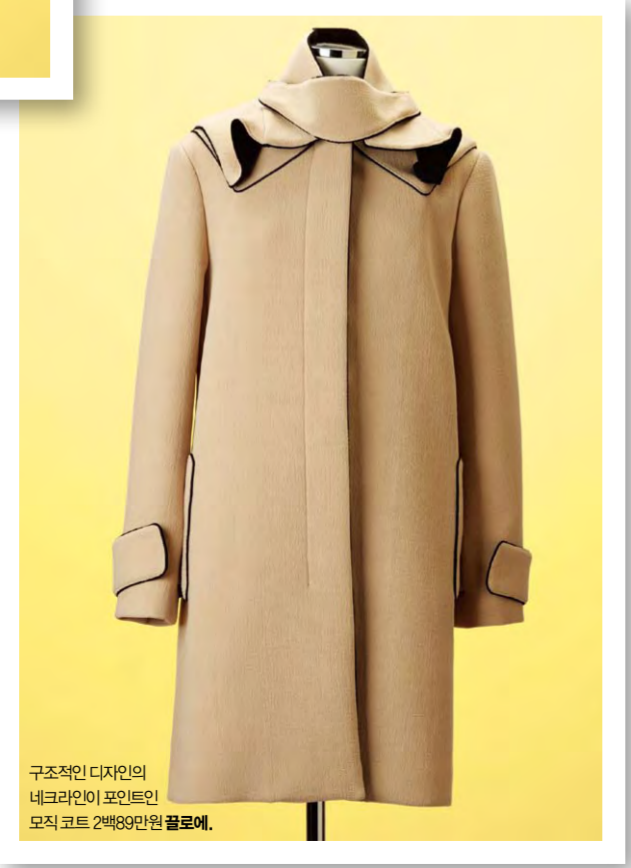
입었을 때 가볍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인 캐시미어 체크 코트 9백만원대 이노나.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트워드 코트 5백80만원대 루이 비통.



말단에 앙가죽을 더해 럭셔리함을 강조한 캐시미어 코트 5백47만원 렌디.



구조적인 디자인의 네크라인이 포인트인 모직 코트 2백89만원 클로에.



컬러 블록이 멋스러운 미니멀한 디자인의 앙모 코트 3백70만원대 프라다.

구피 1577-1921 비버리 프로섬 02-3485-6536 비비안 웨스트우드 02-3438-6292 마르니 02-6905-3665 렌디 02-2056-9022 루이 비통 02-3432-1854 이노나 02-3438-6070 클로에 02-543-1737 프라다 02-3218-5331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이시진트 이상영 에디터 권유진



the behind of New Classic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남성복 브랜드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와 전설적인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의 만남. 패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조합. 지금 그 놀라운 세계가 패션계를 물들이고 있다.



1 배후 인물이라는 주제로 완성한 2014 S/S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광고 비주얼. 제냐 큐티르를 입고 왼쪽에서 있는 제이미 도넨, 그리고 오른쪽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클래식한 수트를 입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조라자는 이탈리아 모델 파울로 안카시. 포토그래퍼 듀오 아녜스 앤드 비누스가 촬영했다. 2 스테파노 필라티. 3 2014 S/S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광고 캠페인. 4, 5, 6 스테파노 필라티가 제냐와 만나 첫선을 보인 2014 S/S 컬렉션.



이탈리아 클래식 정수 제냐, 필라티를 만나
타닥타닥 돌아가는 제냐의 유서 깊은 방직 기계들의 움직임, 세심하고 배려 깊은 클로즈업 영상이 소장을 가득 채우고, 모두가 기대했던 우아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스테파노 필라티의 첫 번째 제냐 큐티르 컬렉션이 등장했을 때 말라노 소장은 감탄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역시 필라티라는 친사와 함께, 2014 S/S 컬렉션을 통해 보여준, 가려진 패션 유산과 창의력으로 가득한 엘리트 디자이너가 만났을 때 창출된 시너지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컸다. 어깨 실을 뺀 유려한 실루엣, 핵심적인 의상에 저지 소재의 소매를 레이아웃했을 뿐 아니라 제냐라는 브랜드 네임에 걸맞은 신중한 소재의 선택까지 존중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필라티+제냐 스타일이 탄생한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이자 세계인이 남다른 캐릭터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못 잘 입는 남자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패션-뷰티지만 대중 앞에 주인공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세에 패션 하우스 세루티(Cerutti)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패션계에 입문한 이후,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라다를 거쳐 톰 포드와 함께 구찌 그룹의 디자인 디렉터로 자리를 옮겼다가 2004년 임성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필라티는 열렬한 미니멀리즘을 거느린 독보적인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2013년 1월,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그룹의 컨설팅을 시작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



제냐의 진정한 조력자

필라티의 새로운 발걸음은 이번 시즌 제냐 광고 캠페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인터뷰를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조력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필라티의 조용한 발걸음이 광고 캠페인의 주제로 잔잔히 등장한 것이다. 이번 광고 캠페인의 주제는 배후 인물이라는 독특한 설정. 큐티르 컬렉션의 이면을 파헤쳐 보여주는 이 주제의 본래 의미는 17세기 프랑스의 리슐리외 추기경의 측근이었던 프랑수아르 클레르 뒤 트랑블레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중세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해석한 현대의 배후 인물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을 뜻한다. 강력한 배후 인물은 스스로의 능력과 전문 기술, 문화 등을 통해 성공을 얻었으며 테일러링과 스타일에 대한 이들의 러스카리하고 우아한 취향은 이번 시즌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큐티르 컬렉션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광고 비주얼에서 큐티르 컬렉션을 입고 등장한 매력적인 피사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크리스찬 그레이를 연가한 제이미 도넨. 하지만 필라티는 자신이 제이미 도넨의 역할이 아닌, 그 옆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조력자라 이야기한다. 필라티가 제냐 그룹에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언어인 컬렉션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이번 광고는 삼각적으로 이렇듯 제냐와 내용적으로 의미상징한 부분이 많다. 필라티가 오직 제냐의 상위 라인인 큐티르 컬렉션만 다뤄왔기 때문에 제냐 전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패션계의 의문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쾌하게 답했기 때문이다. 질도 제냐 화장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에게 광고 속 큐티르 컬렉션을 입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클래식한 제냐 수트를 입은 조력자라는 콘셉트가 지금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대로 상징한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제냐를 강조하기 위해 해 소의 시선부터 러스카리한 원단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텍스타일 제조업체로서 제냐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했다. 여타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범하는 실수, 기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어 자신의 역량만 돋보이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탈바꿈하려는 선봉은 시도도 하지 않았다. 남성복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냐라는 브랜드가 노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보겠다는 제냐가 지닌 전통적인 남성복이라는 유산에 자신만의 터치를 담아 현대화하는 진정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제냐 광고 비주얼이 고급스러운 제품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필라티는 제냐의 스토리, 큐티르와 클래식 수트 컬렉션의 차이점, 그리고 그 미묘한 가치를 올바르게 표현한 제냐 테일러링의 완벽성을 그대로 전한다. 이번이 첫 번째 시즌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제냐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한 필라티의 세계가 앞으로 풍부한 자원을 통해 어떤 우아함과 새로운 클래식상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에디터 배민

말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실크 재킷 3백6만원 구찌.



살바 단추가 클래식하고 드레시한 분위기를 내는 울 재킷 2백5만원 말프 로렌 블랙 라벨.



캐주얼한 느낌의 베이시 먼 더블 재킷 1백89만원 휴고 보스.



완벽한 핏이 아름다운 마이크로 패턴 더블 재킷 4백20만원 천원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가전트 다임 기법으로 은은하게 염색한 컬러와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소재가 멋스러운 체크 재킷 96만원 빨질레리.



진정한 멋쟁이를 위한 선명하고 화사한 컬러의 울 재킷 5백30만원 브리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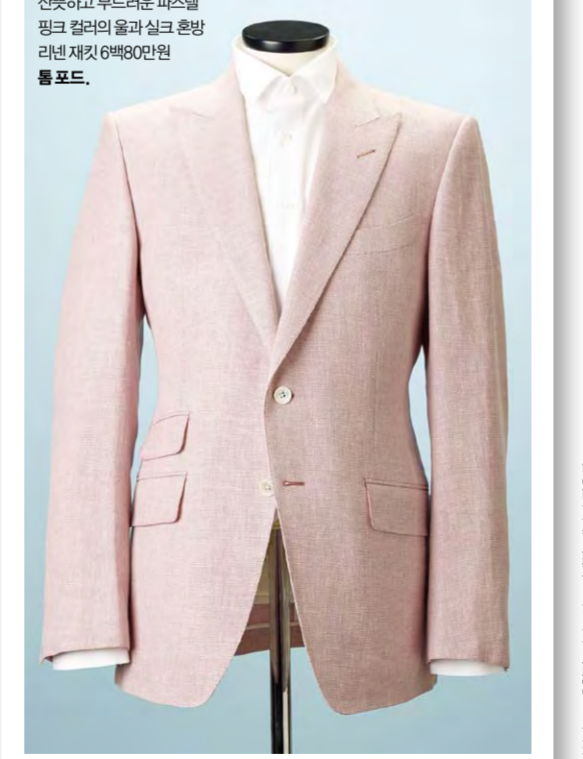
퀵팅 처리한 소재와 젊은 감성의 디자인이 유니크한 재킷 2백70만원 바버리 프로섬.



모던한 화이트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재킷 3백78만원대 생로랑.



신뜻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핑크 컬러의 울과 실크 혼방 리넨 재킷 6백90만원 톰 포드.



구찌 1577-1921 셀로랑 02-3438-7627 스테파노 필라티 02-511-0285 톰 포드 02-6905-3534 휴고 보스 02-515-4088 브리오니 02-540-4723 바버리 프로섬 02-3485-6536 빨질레리 02-2076-7627 말프 로렌 블랙 라벨 02-6004-0136

스타일링: 유한영, 이아영, 이아영, 에디터: 김유진

ELEGANT CLASSIC STYLE

서츠와 블레이저 안에 연출한 스카프, 핑크지프, 팬츠는 모두 빨질레리.



선명하지만 요란하게 튀지 않는 청명한 블루 컬러의 싱글 버튼 블레이저에 화이트 컬러의 체크 패턴을 더해 시원한 느낌을 배가했다. 팬츠 역시 화이트로 매치하면 패턴 컬러와 통일감을 주어 정돈된 느낌을 더할 수 있다. 비즈니스 룩에는 컬러감이 돋보이는 슬림한 타이를 연출하고, 워크엔드 룩을 위해선 타이 대신 은은한 색감의 스카프를 곁들여 스타일링에 재미를 주는 것도 좋다.

MODERN RETRO STYLE

서츠와 더블브레스트 블레이저, 팬츠, 핑크지프 모두 빨질레리.



밝은 베이지 컬러에 체크 패턴을 더한 더블브레스트 블레이저는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완성한다. 타이는 기본적인 솔리드 컬러보다는 화려한 패턴이나 질감에 변화를 준 니트 타이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온타리오에는 재킷보다 한 단계 짙은 브라운 컬러 팬츠로 톤온톤 코디를 하고, 오프타입에는 데님이나 차분 팬츠 등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제품 사진 촬영: 스타일링: 유한영



ultimate Blazer

어둡고 두꺼운 외투는 훌훌 벗어던지고 산뜻한 옷차림으로 갈아타야 하는 이 계절. 정통 이탈리아인 슈트 브랜드 빨질레리가 봄을 담은 화사한 컬러와 경쾌한 체크 패턴을 입은 블레이저 컬렉션을 제안한다.

이탈리아의 세련된 감성을 담은 빨질레리의 컬러 블레이저

이탈리아 남성복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뛰어난 소재와 정교한 봉제 기술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실루엣 덕분이다. 태양의 축복을 받은 지역답게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풍요롭고 부드러운 색감 역시 이탈리아 남성복만이 지닌 장점임이 분명하다. 전통적인 장인 기술과 이탈리아 특유의 로맨틱한 감성을 접목한 빨질레리는 가장 전형적인 이탈리아 클래식 브랜드 중 하나다. 빨질레리는 이름은 비첸차 지역의 질레리 궁전을 의미하는 팔라초 질레리(Palazzo Zileri)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 소유했던 오래된 건축물에서 유래했으며, 가지가 뻗어나가는 뿌리 깊은 나무를 형상화한 심벌 마크는 인종이나 연령, 문화와 계절을 초월해 모든 남자를 위한 다양한 옷을 만들겠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의 옷장을 거쳐 부자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세대를 초월한 클래식을 지향하기에 매년 유행을 따라 콘셉트를 바꾸기보다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슈트와 재킷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2014 스프링 컬렉션에서 빨질레리는 세련된 색감을 강조한 컬러 블레이저를 제안한다. 따뜻한 계절로 바뀌기 시작할 때면 이탈리아의 멋진 남자들은 저마다 산뜻한 컬러 블레이저를 꺼내 입을 만큼 패셔너블한 옷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이번 시즌 빨질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에게서 영감을 얻어 그의 작품 특징인 빛, 공간, 화면 등에서 도입한 다채로운 블루 컬러와 핑크, 레드, 퍼플 등의 포인트 컬러에 체크 패턴을 더해 모던하게 컬렉션을 완성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초여름까지 입기 좋으며, 늘 상쾌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봄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와 싱글, 더블 버튼 스타일 등 다양하게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급스러운 색감과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블레이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옷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셔츠와 팬츠에 매치해도 잘 차려입은 듯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은은한 색감의 가벼운 스카프와 세련된 프린트의 핑크지프를 매치해 스타일링 지수를 높이는 것도 추천한다. 문의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02-3479-1956, 고객 센터 1599-0007 에디터 이아영



Casa do C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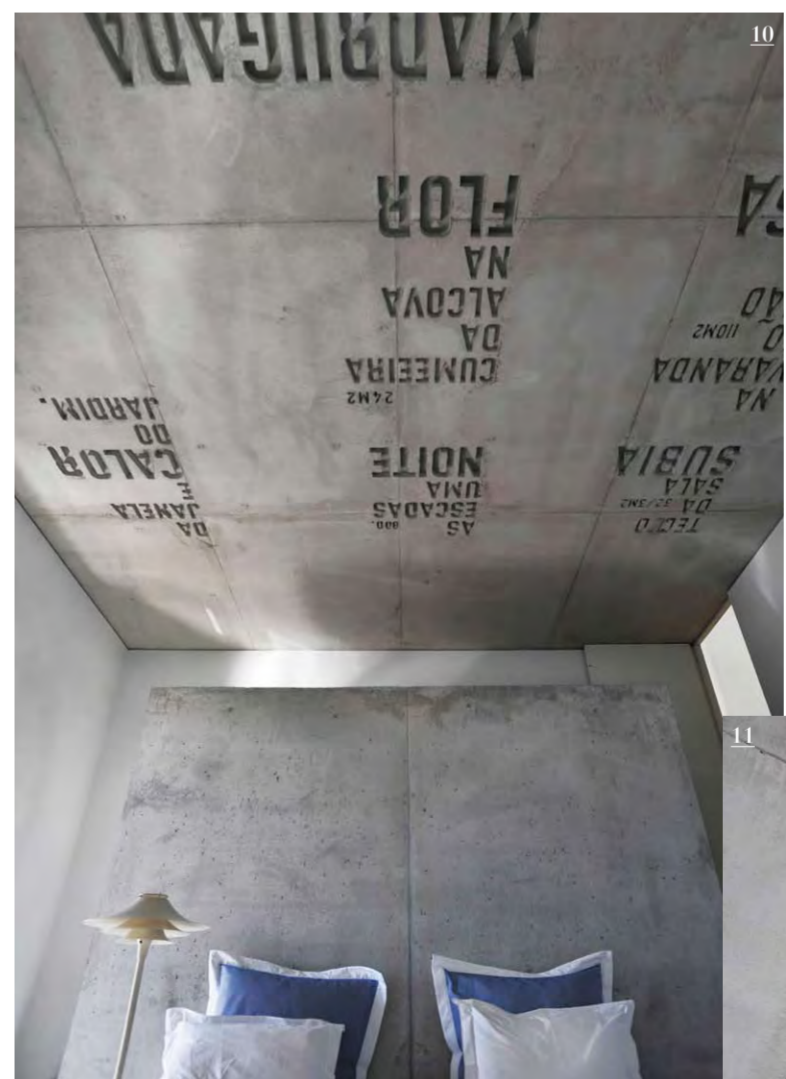
포르투갈의 이야기하는 건축물

갤러리들이 즐비한 동네에서 몇 분 거리에 위치하며 모더니티의 극치를 보여주는 카사도 콩토(Casa do Conto)는 벽과 천장에 새긴 단어를 통해 건축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henri del olmo*

'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건축물

19세기 건물의 철로 만든 손 모양 문 두드리개와 오래된 목조 문을 지나면 심플하고 현대적인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인 세계와 만나게 된다. 다양한 톤의 회색은 마치 흑백사진처럼 집 안 전체에 드리워 있다.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콘크리트의 모던함이 느껴지는 6개의 객실, 공중에 매달린 듯한 계단, 미니 주방과 욕실을 의미하는 방 안의 콘크리트 상자, 그리고 침대보와 창문에 달린 블라인드의 하얀색은 계단의 까만색 난간과 어우러져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 줄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화강암으로 만든 정원 쪽 벽은 불에 그을려 있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계단까지 이어지는데, 그 흔적을 일부러 남겨둔 것이다. 마치 "전에 나는 화석이었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 2009년, 호텔 문을 열기 바로 며칠 전 어느 밤, 할로윈 전등을 오랫동안 켜놓는 바람에 건물은 불에 휩싸였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벽 하나만 남겨놓고 밤새 모두 불탔다. 페드라 리카다 건축 사무소의 디렉터이자 엔지니어인 호셀 주인 알렉산드라 그랑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건너편 계단에 서 있었어요. 밤새 마지막 불씨가 꺼질 때까지 지켜봤지만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지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불에 그을린 벽을 증거를 삼아 새로운 건축을 시도했고, 당시 513번지 보이비스타가는 지금의 703번지가 되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집에 남은 유일한 벽은 화재를 견뎌냈다. 벽면의 골판지 시트는 건물의 바닥재와 뒷면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했다. 각각 다른 장식으로 이루어진 6개의 방 내부 천장에는 시가 조각되어 있는데, 집의 콘셉트가 진화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방은 이 시를 써준 이 도시 사람들의 이름이니셜로 부른다. 콘크리트 계단의 철 막대를 연결하는 난간 같은 가족 타이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객실의 침대 머리맡에는 콘크리트 상자 같은 스토리지와 욕실이 있다. 계단 같은 도면으로 이루어진 천장의 개구부는 빛을 포착한다. 집은 얼마나 오랜 생을 살 수 있을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모던한 하우스가 화재에 따른 레노베이션을 거친 후 6개의 시로 탄생했고 회색의 콘크리트 천장들 위에 조각되어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R2 디자인 그래픽 회사의 아이디어로, SEGDA 디자인 어워드에서 여러 번 소개되고 유럽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메달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았다. 페드라 리카다 사무소의 건축 프로젝트와 6명의 작가가 쓴 6개의 특별한 시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천장에 조각된 글자들을 읽고 싶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건축물.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 회색 집이 날다르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1 회색 천장에 새겨진 시. 각각 다른 느낌의 6개의 방 천장에는 이렇게 시가 조각되어 있다. 2 오랜 세월을 보내며 화재까지 견뎌낸 건물 외벽. 3 객실의 침대 머리맡에 콘크리트 상자 같은 스토리지와 욕실을 배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 콘크리트 계단의 철 막대를 연결하는 난간 같은 가족 타이들은 마치 계단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5 연과 선의 조화가 돋보이는 계단. 6 연트크 가구 달린 라울 소우시가 선택한 객실의 빈트지 가구들. 7 넓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8 노을과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테라스. 의자는 임시 제품. 9 테라스와 이어지는 모던한 분위기의 침실 모습. 9 빈트지 가구의 의자와 모던한 테이블 세트가 조화를 이루는 다발 침실. 천장의 시와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디자인 작품을 보는 듯하다. 10, 11 각각의 방은 이 시를 쓴 사람들의 이름이니셜로 부른다. 12 동그라미와 네모의 조화가 앙증맞은 욕실 내부. 시간적인 미학을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13 계단 밑에 놓인 빨간 가구의 의자는 한스 에덴과 톤 하스가 제작한 아이트루트 제품.



Info
 Casa do Conto
 (01017의 집),
 da Boavista 703,
 4050-110 Porto, Portugal
 Tel 00351 222 060 340
 Fax 00351 222 060 349
 www.casadoconto.com
 객실 가격
 98유로에서 1백50유로 사이

화재 마미아 드 로제 올리베이라(Maria de Moraes Oliveira)



에르메스

에르메스 2014 슈쇼 이벤트 에르메스가 전세계를 확장 강령 6층 일렉트로몰에서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슈쇼 행사를 진행한다. 에르메스 슈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르 아르디가 디자인한 2014 S/S 슈즈 컬렉션으로 꾸미며, 프랑스 문화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현대 안무가 조엘 부비에가 퍼포먼스 작업에 참여했다. 패션과 예술을 하나로 엮은 이색적인 이벤트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3015-3258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 베르사이유 몽테뉴 현재 공사 중인 몽테뉴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의 가설 벽에는 베르사이유 몽테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프랑스 예술가 피에르 들라비(Pierre Delavie)가 베르사이유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것으로, 파리 에비뉴 몽테뉴 30번지와 베르사이유 정원의 운명적인 만남을 표현했다. 문의 02-513-3232

키튼 셔츠 컬렉션 키튼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아 브랜드의 스타디스탈 아이템인 셔츠 컬렉션을 제공한다. 브랜드 독점 원단만 사용하며, 버튼홀에서부터 레이싱 부츠까지 총 17단계를 거치는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수트는 클래식하게, 셔츠와 타이는 화려하게 매치하는 스타일링이 키튼 룩의 정석이다. 문의 02-542-9953

토즈 디-큐브 백 토즈가 2014 S/S

FASHION



디올



키튼



토즈

SHOWROOM

타사키 인피니타 커풀 링 타사키에서 웨딩 시즌을 앞두고 18K 사쿠라 골드 버전의 인피니타 커풀 링을 새롭게 출시한다. 사랑을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긴 인피니타 커풀 링은 플래티넘 버전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며, 심플하지만 우아한 곡선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플에게 제격이다. 여성 디자인에는 최상급 멜리다 아이폰드를 세팅했다. 문의 02-3461-5558

펜디 워치 뉴 비 펜디 펜디 워치가 봄을 맞아 '뉴 비 펜디' 컬렉션을 제공한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비 펜디 라인의 새로운 버전으로 3·6·9시 방향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펜디 워치만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오렌지, 라이트 브라운 등 봄과 어울리는 밝은 컬러의 가죽 스트랩으로 구성했으며, 패션 워치 편집매장 갤러리아클락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스와치 드림캐의 스와치에서 2014 S/S 시즌을 맞아 달콤함이 느껴지는 '드림캐의 워치'를 출시한다. 스와치의 유명 파티시에어가 그래픽 아티스트인 사라 콜리와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이 스페셜 에디션은

빛꽃이 만개한 봄날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장미 리본으로 장식해 오후의 따뜻한 디저트 타임을 연상시킨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케이크 나이프와 포크로 표현했다. 문의 02-3149-9549

그라프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컬렉션 그라프가 나비에서 영감을 얻은 버터플라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정교하게 세팅한 보석 사이에서 마카즈와 페어 세트프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나비 모티브를 충주듯 생동감 있게 표현한 컬렉션은 일상생활은 물론 특별한 모임이나 파티, 일상에 한 번뿐인 웨딩 데이를 아름답게 빛낼 것이다. 문의 02-2256-6810

타사키

그라프

JEWEL



스와치

시즌을 맞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백을 재해석한 '다-큐브 백'을 선보인다. 기존의 디백보다 각이 잡힌 형태가 특징이며, 화이트와 버건디, 버건디와 핑크 등의 감각적인 컬러 매칭과 다양한 소재, 사이즈로 구성했다. 문의 02-3448-8105

버버리 미디엄 캔버스 체크 호보 백 버버리에서 캔버스 소재의 체크 호보 백을 제공한다. 빈티지 스타일의 금속 하드웨어 장식과 수납이 편리한 안주머니로 상세하게 디자인했으며, 브라운, 레드, 블랙,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마지막 회에서 천송이가 들고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의 02-3485-6583

분 주니어 베이직 티셔츠 컬렉션 분 주니어의 키즈 버전인 분 주니어(BOON JR.)가 아이들을 위한 베이직 티셔츠 라인을 론칭한다. 그래픽 티셔츠 전문 브랜드 티라 이브라리(Tee Library)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이 번 컬렉션은 매일 입어도 지루하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에 중점을 뒀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기본 티셔츠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로고 배지를 함께 증정한다. 문의 02-310-1463

구찌 2014 누보 백 구찌의 2014 S/S 컬렉션에 등장한 누보 백은 이리누보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프렌치 와탈 장식이 특징이다. 화려한 색상과 소재가 눈에 띄며, 솔다백, 클라치 백, 호보 백, 쇼퍼 백 등 4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브랜드의 상징으로 일컫는 뱀부 장식을 기방 뒷부분에 적용해 구찌 고유의 장인 정신을 드러낸다. 문의 1577-1921



버버리

분 주니어

구찌



발렌타인 골프 프로모션 발렌타인이 골프와 발렌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전국 주요 바에서 발렌타인 17년 또는 21년 1병을 주문하면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세트 또는 골프공 1만원 상품권, 풋잡이골프 벨트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3월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3466-5700

LIFESTYLE

산타 마리아 노벨라



샤넬

에트로 향수

디올

샤넬 당텔 프레스유 샤넬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당텔 프레스유 일루미네이팅 파우더를 출시한다.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타카하면 베이스와 대조를 이루는 핑크와 브라운 컬러가 고급스러운 빛을 더하는 동시에 음영 효과를 주어 입체적인 페이스를 만든다. 4월 4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문의 080-332-2700

입생로랑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젤 크림 입생로랑에서 피부에 빛을 더하는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젤 크림'을 출시한다. 24시간 유지되는 보습력에 다크 스팟과 피뿔결을 개선하고 피부에 광채를 더하는 4-in-1 멀티 광채 젤 크림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문의 080-565-5678

산타 마리아 노벨라 이쿠아 디 로즈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화이트데이를 맞아 로맨틱한 장미 향이 가득한 토너, 이쿠아 디 로즈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증류 방식을 통해 아침에 수확한 장미만으로 만들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은은한 장미 향과 신뜻한 사 용감 등 리프레시 효과도 지녔다. 문의 02-546-1612

에트로 향수 론칭 이벤트 에트로 향수가 지난 2월 신사동 라자 호텔에서 향기로운 에트로의 밤에 초대할 나다라는 주제로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국내 첫선을 보이는 에트로 향수는 총 25개의 컬렉션 중 자카르, 라자스탄, 페이즐리 등을 먼저 선보이며, 에트로를 상징하는 화려한 페이즐리 문양과 우아한 곡선의 보틀로 이루어졌다. 문의 02-3443-5050

디올 어딧 플루이드 스틱 론칭 행사 디올이 창당 동 비문드 뮤지엄에서 립 컬렉션, 디올 플루이드 스틱을 선보였다. 립스틱도 아니고 립 레커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립 제품으로,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뛰어난 발색력과 촉촉함을 담았다. 레드, 코랄, 핑크, 베이지 등 4개의 셰이드에 총 16개의 컬러로 구성했으며, 오는 4월부터 디올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9631

BEAUTY



ROYAL SALUTE
SCOTCH WHISKY

Enjoy Royal Salute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율을 높입니다.

존경은 강요가 아니라, 모두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Don't command respect, earn it.

Facundo Pieres
Facundo Pieres, World No.1 Player